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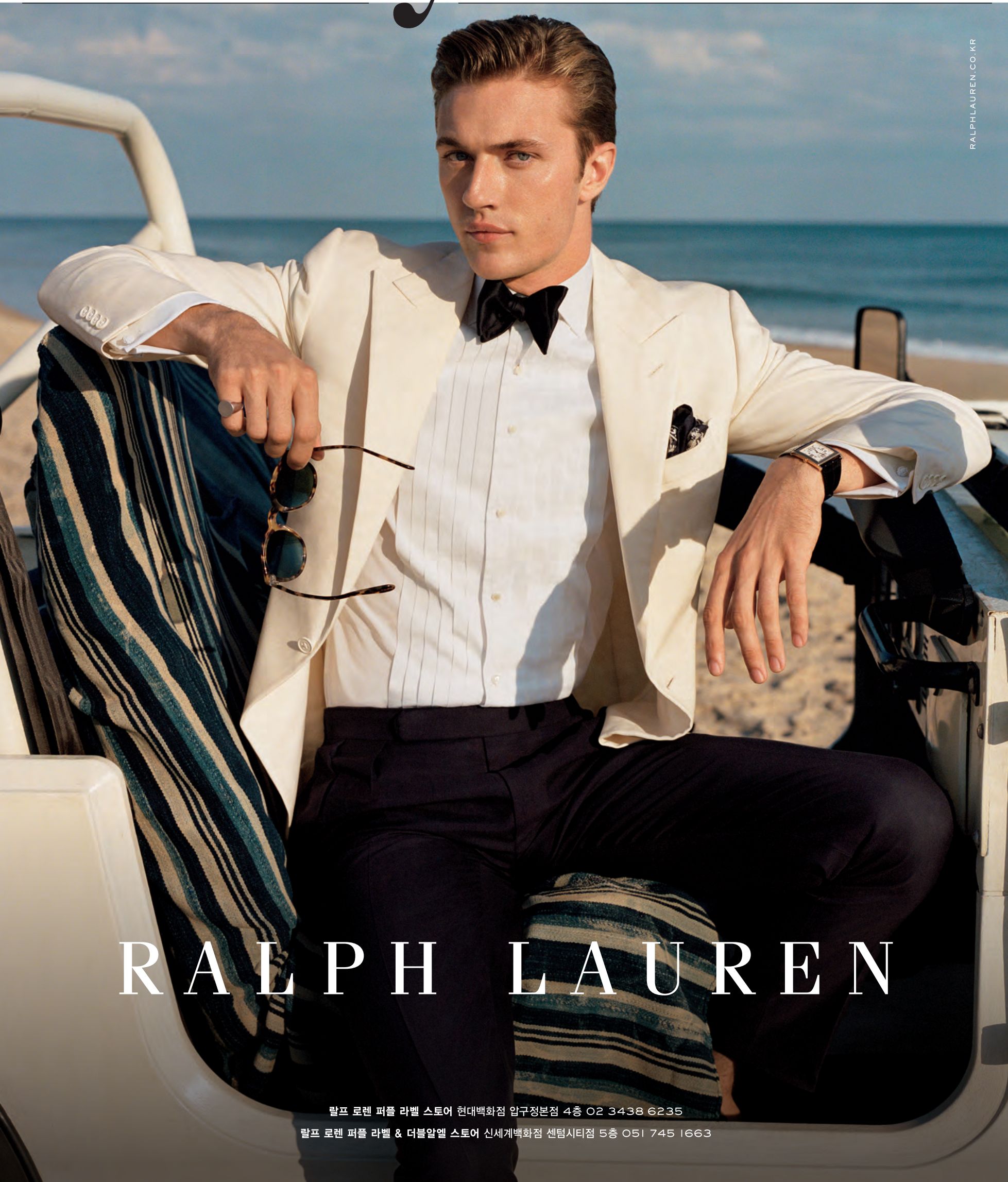
May 2025
vol. 286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Gift Special



RALPHLAUREN.CO.KR

RALPH LAUREN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스토어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4층 02 3438 6235
랄프 로렌 퍼플 라벨 & 더블알엘 스토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5층 051 745 1663



SUBLIMAGE LE SÉRUM AND LA CRÈME

수블리마지 르 세럼 & 라 크림, 강력한 활력 충전

폴리프렉서닝 과정을 거쳐 탄생한 바닐라 플래니폴리아 성분은 최초 원료보다 40배 더 농축한 활성 분자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듀오 수블리마지 르 세럼과 라 크림은 건강하고 어려보이는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 집중 작용합니다. 수블리마지 르 세럼의 강력한 성분은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러우며 화사하게 빛나도록 만들어줍니다.

* 샤넬 연구소에 의해 정의된 피부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 수분감, 피부 편안함, 주름, 탄탄한 피부, 균일함, 피부 강화, 광채

CHANEL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38



Hermès, the endless line

THERE IS ETERNITY IN EVERY BLANCPAIN

The spirit to preserve.

Fifty Fathoms
Collection



"Creation"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2021
Grand Title winner
© Laurent Ballesta

A Fifty Fathoms is for eternity.

Launched in 1953, the Fifty Fathoms is the first modern diver's watch. Created by a diver and chosen by pioneers, it played a vi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scuba diving. It is the catalyst of our commitment to ocean conservation.



RAISE AWARENESS,
TRANSMIT OUR PASSION,
HELP PROTECT THE OCEAN

www.blancpain-ocean-commitment.com

J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dior.com - 02 3280 0104

DIOR

HIGH JEWELLERY

DIOR MILLY DENTELLE COLLECTION

Contents

- 12_ **SELECTION 1** 자유로운 실루엣 위 생기 넘치는 컬러 한 방울, 오늘의 운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시간.
- 14_ **SELECTION 2** 활동성과 스타일 모두 충족하는 대담한 컬러 플레이로 완성한 에너지틱한 아웃도어 룩.
- 15_ **BIG TIME**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남성 의 매력을 배가하는 클래식 워치 셀렉션.
- 18_ **천 년 고도의 불을 '사진 예술'로 물들이는 플랫폼의 미학** 해마다 수십만 명이 발품을 파는 축제이자 국제적인 사진 축제인 교토그라피(KYOTOGRAPHIE)는 운이 좋다면 개막 시 기에는 벚꽃의 절정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면면을 새롭게 발견하는 영감 충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올봄 'humanity'를 주제로 막을 연 교토그라피 2025는 오는 5월 11일 까지 펼쳐진다.
- 20_ **빛 없이 있던 것(Ce qui fut sans lumière)** 2025년 봄 한가운데, 김리아갤러리에서는 이 은영, 오다코, 박예림 등 3인의 작가와 함께 하는 기획전 〈빛 없이 있던 것〉이 펼쳐집니다 (2025. 4. 25~ 5. 24). 자연, 시간, 존재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저마다의 조형 언어로 꾸준히 베풀어온 세 작가는 '흙'을 느슨한 공통분모로 지닌 채 자신만의 영감과 호흡으로 온전히 공간을 채우면서도, 전시 풍경을 전체적으로 보 노라면 마치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 반짝이는 대화의 고리처럼 유기적 공간대가 은은하게 엮힙니다.



- 22_ **NEW WONDERLAND** 실재보다 더 사람 같은 '조각상'을 만난다.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현대미술 조각가 론 뮤익(Ron Mueck)의 아시아 최대 규모 회고전은 작가의 시기별 주요 작품을 집으며 지난 30년의 궤적을 따라간다.
- 24_ **INNOVATIVE ENGINEERING** IWC는 엔지니어링과 기술력을 강조하는 워치메이커로 올해도 정밀하고 기능적인 시계 제작을 목표로 여러 분야에 적합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 26_ **GET THE LIST** 이 계절과 무드를 모두 담은 특별한 셀렉션.
- 28_ **HAVE A NICE TRIP!** 견고하게 설계된 내구성과 마감은 기본, 뛰어난 미감까지 갖춘 여행 가방은 단연 여행 메이트 0순위다.
- 29_ **THE HERITAGE** 강북의 대표적 랜드마크이자 새롭게 태어난 신세계백화점의 럭셔리 쇼핑 공간 '더 헤리티지(The Heritage)'에 샤넬의 새로운 패션 및 워치 & 화인 주얼리 부티크를 4월 9일 정식 오픈했다.
- 30_ **RUN TO YOU** 기본 전환에 달리지만 한 게 없다. 기능성은 물론 산뜻한 컬러감과 트렌디한 디자인까지 겸비한 요즘 러닝화.
- 31_ **THE BEST GIFT EVER** 따뜻한 색채와 간명한 디자인, 활동성 높은 아이템으로 완성한 5월의 선물 리스트.
- 32_ **THE GIFT IDEAS** 고마움과 소중함을 전하는 5월, 그 진심을 담아 고른 특별한.
- 42_ **EDITOR'S PICK**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내추럴 컬러,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는 아늑한 향, 완벽한 봄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5월의 신상.



랄프 로렌 퍼플 라벨의 2025 봄 컬렉션은 브리지햄프턴(Bridgehampton)의 자연에서 영감받아 탄생했다. 클래식한 랄프 로렌 실루엣에 휴양지의 여유로움을 더해 가벼우면서도 타임리스한 스타일로 완성했다. 해안가의 멋과 수수한 아름다움의 정수를 보여주는 블레이저, 테일러드 슈트, 셔츠 등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8-6235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시요.
stylechosun.co.kr



부드러운 테리 소재로 제작한
햇핑크 컬러의 데이비스 요트
볼캡 가격 미정 **에르메스**.

18K 로즈 골드 소재에
총 0.05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14개를
장식한 로즈 골드 품품닷컴
리버시블 네크리스 가격
미정 **포멜라토**.

아코아 진주와 총 0.2캐럿
다이아몬드를 포인트로 더해
유니크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밸런스 크로스이어링 가격
미정 **타사키**.

아만 활동 시 18시간을 초과하여
차단하는 UV자외선 차단막의 선풍크로스
가죽미모 **오블리브** by **에르메스**로 **타사키**.

블랙 & 화이트 이미테이션 펄
소재로 제작한 사넬 로고 포인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샤넬**.

고어텍스 방수 소재를
사용해 데일리는 물론
아웃도어 활동에 제격인
스피어 하이킹 고어텍스
재킷 42만원 **살로몬**.

100% 실크 소재의 프린트 스카프 58만원 **에트르**.

for her
Selection

자유로운 실루엣 위 생기 넘치는 컬러 한방울, 오늘의 운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시간.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배철 세팅 기법으로 제작한 라온드
컷지르코니아에서 후광이 발생하는
원베(Limber)를 28만9천원
부터 **스타일** **스타일**.

길이 조절 가능한
가죽 스트랩을 장착한
트리옴프 울 오버
패턴의 요가 매트
1백50만원 **셀린느** by
에디슬리먼.

촉수성이 좋은 비스코스
소재로 울렁성을 극대화한 소재
45만5천원 **롤랑**.

가볍게 떠난 여행에 필요한
콤팩트한 짐을 수납할수 있는
산뜻한 옐로 컬러의 롤라데이 핸드
캐리 케이스. 50.5×38×18.4cm,
1백64만원 **리모와**.

아이코닉한 로고 패치로
디자인을 완성한
비스코스 양말 3pcs 세트
78만원 **미우미우**.

그린 컬러 나토
스트랩의 파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38mm 1천4백63만원
블랑팡.

에르메스 02-542-6622 **살로몬** 02-515-1318
포멜라토 0030-8321-0441 **타사키** 02-3461-5558
에실로복스 02-501-4436 **샤넬** 080-805-9628
에트르 02-3446-1321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셀린느 by **에디슬리먼** 1577-8841 **호간** 02-540-0523
리모와 02-546-3920 **롤랑** 02-543-7685
블랑팡 02-3479-1833 **미우미우** 02-541-7443

에디터 신정영 스타일리스트 임희영



GLOBAL BRAND AMBASSADOR YOONA LIM

qeelin

신세계 백화점 본점 신관 2F

qeelin.com

for him
Selection

아이보리, 블랙, 그린
퍼르자 터퀴이즈 컬러
소재에 불가리로 고가
그레이팅된 로고가
있는 불가리 불가리
슬러 58mm 7천원 불가리

퍼로자 터퀴이즈 컬러 패브릭 소재에 불가리 로고가 그레이빙된 플레이트가 있는 불가리 불가리 슬릿 58만7천원 불가리

A close-up photograph of a grey leather bag. The bag features a woven pattern of the letters 'K' and 'A' in a light grey color. A yellow tag is visible at the bottom right corner.

독특한 아웃솔과 두 겹의 EVA 미드솔은 편안한 착화감을 선사하는 발로부터 42만8천원 **캠퍼**

에스프리 블루 스타일 00_501_4426 리미아 02_546_2020

미니스트 임태영

에디터 신정임 스타일리스트 임희영

오토맥 그린 식센 44mm 3여원내 **아블로**
에매럴드 그린 투명 케이스의 비엠펙 투르비용
셀프 와인딩 투르비용 무브먼트를 장착한

다미아니.

Big Time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에디터 성경민

A collection of seven luxury wristwatches is displayed on a dark, reflective surface. The watches are arranged in a cluster, overlapping each other. They feature various designs: some with white dials and moon phase complications, others with blue dials and chronograph functions, and some with simple white dials. The brands visible include Jaeger-LeCoultre, Louis Chopard, Piaget, Audemars Piguet, and Omega. The watches are shown with different strap materials, including black leather and dark blue leather. The lighting highlights the intricate details of the watch faces and the texture of the straps.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Begin Again

1853년 프랑스에서 천연 고무를 활용한 최초의 러버 부츠를 선보이며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이어온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에이글(AIGLE). 1백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프랑스의 장인 정신이 깃든 디자인과 우수한 내구성, 실용성이 브랜드의 핵심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활용 소재의 비중을 높리며 다양한 혁신을 시도해 온 에이글이 2000년 초 론칭 소식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국내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다. 이를 기념해 지난 4월 4일 서울 성수동에서 '에튀드 스튜디오(Études Studio)'와 협업해 완성한 '2025 에이글 익스피리언스 바이 에튀드 스튜디오 S/S 컬렉션'을 공개했다. 에튀드 스튜디오와의 두 번째 만남인 이번 컬렉션은 아티스틱 디렉터 듀오 제라미 에그리(Jeremie Egry)와 오렐리앙 아르베(Aurelien Arbet)가 모로코 아틀라스산맥을 여행하며 목격한 지평선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 자연의 컬러와 실루엣을 담은 레더-투-웨어부터 슈즈,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기능성과 디자인을 고루 갖췄다. 특히 컬렉션을 대표하는 MTD® 2.5 레이더 자켓은 접을 수 있는 방수 파카로 자체 포켓에 넣어 휴대성이 좋고 패리어드XP(Pariot XP) 슈즈는 비브람 아웃솔을 덧대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에이글 엠베서더인 배우 이동욱가 착용한 '익스피리언스 라인의 타이다이(Tie-dye)' 아이템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롯데홈쇼핑의 김재현 대표는 에이글 같은 감각적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홈쇼핑 사업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고 국내 고객에게 소개하는 것에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웃도어를 필두로 다양한 브랜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자연과 도시를 잇는 현대적 감각의 아웃도어 제품을 선보일 에이글의 행보가 기대된다. 문의 02-2143-7645



여행자의 만년필

질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모티브로 한 마이스터스틱 80일간의 세계 일주 컬렉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에디션이 출시됐다. 클립에는 포그와 아우다의 사랑을 상징하는 래커 하트를 더하고, 남에는 작가 질 베른의 또 다른 소설 <별기구를 타고 5주간>을 기념하는 이미지와 요코하마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새겼다. 캠프에는 여행 중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 '80'을 강조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레진 클래식 및 르 그랑 에디션은 비롯해 듀에 클래식, 솔리테어 르 그랑 에디션과 리미티드 에디션 811로 구성된다. 문의 1877-5408

Travel Master

시간에 대한 정확성을 추구하는 위치메이커 오메가에서 혁신적인 월드타이머를 씨마스터 컬렉션에 적용해 선보인다.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컬렉션으로 2017년 출시한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컬렉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라인이다. 이 아이코닉한 컬렉션에 위치메이킹 기술을 보여줄 기계적인 복잡함과 세심한 미학을 더해 세라믹 형태로 재탄생시킨 것. 이번 월드타이머에서 가장 매력적인 디테일은 다이얼이다. 그레이드 5 티타늄 표면에 레이저 어블레이션과 바니시를 통해 북극의 모습을 담아 대륙의 비전을 구현했으며 탁월한 수준의 디테일로 자구를 정교하게 표현했다. 해질라이트 글라스 아래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24시간 인디케이션이 지형도를 둘러싸고 있다. 각 다이얼의 외부는 DLC 블랙 컬러로 제작했으며 레이저로 깎아내고 광택을 낸 헤니콤 패턴으로 장식했다. 이번 씨마스터 오션 월드타이머는 두 가지 유니크한 스타일로 선보인다. 청록색 바니시 처리한 모델은 터퀴즈 컬러 디테일의 스티치가 돋보이는 러버 스트랩이 특징. 또 하나는 오메가의 새로운 그레이 컬러 슈퍼루미노비어®를 적용한 헨즈와 인덱스가 특징인 그레이 바니시 모델이다. 오토매틱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라버 8938로 작동하며 60bar의 탁월한 방수 기능을 제공한다. 지구 전역의 도시와 시간을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플래닛 오션 월드타이머는 시계와 여행 애호가들의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02-6905-3301



My Little Precious

결혼식을 앞둔 신부에게 단 하나의 웨딩 링을 추천한다면? 키린의 '올루 크라운 인게이지먼트 링'을 꼽을 수 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컬렉션으로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 밴드 위 봉곤 솜은 0.3캐럿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한다. 친절, 진정성, 인내, 헌신 등의 의미를 담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들에게 축복을 전한다. 호불호 없는 베이직한 실루엣으로 데일리는 물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기념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453



Artistic Crafts

예거 르쿨트르를 상징하는 리베르소에 아르데코의 예술적 장식을 더한 '프레스스 컬러'. 숙련된 장인의 손에서만 구현된다는 에나멜링, 정교한 작업이 필수인 점 세팅 등의 기법을 적용한 세브론 패턴과 지그재그 세이프를 다이얼 프레임부터 케이스 측면, 케이스 백 전체에 장식했다. 특히 회전 가능한 케이스를 뒤집으면 진면목이 드러난다. 다크 파플, 화이트, 옐로 등 여섯 가지 다채로운 에나멜 컬러와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화려한 하이 주얼리로 변신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998



Glow on You

빛에 따라 온오히게 감도는 피부 '광'은 동인의 조건 중 하나다. 샤넬 '레 베주 쿼선 리미티드 에디션'은 해 질 무렵의 찬란한 빛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결정은 즉각적으로 커버하고 건강한 광채만 남긴다. 고보습 포몰론 덕분에 피부에 쫄쫄하게 밀착되어 피부 피팅감도 압권이다. 유효한 기능성 외에 자체 개발한 물방울 세이프의 스펠즈 애플리케이션은 얼굴 굴곡을 따라 정교하게 도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뭉침 없이 얇게 덧바를 수 있어 피부 메이크업의 첫 단계는 물론 쿼 메이크오버도 무리 없다. 15g 11만4천원. 문의 080-805-9638



Perfect Denim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은 소재 중 하나, 데님. 랄프 로렌 컬렉션의 2025 스프링 시즌에는 이 데님을 랄프 로렌 컬렉션만의 타임리스한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먼저 이번 컬렉션의 핵심 아이템은 러셀 재킷이다. 캐주얼한 데님 소재에 허리 다트와 플랩 포켓을 매치해 세련된 실루엣으로 정제했다. 여기에 손으로 직접 샌딩 처리한 인디고 워싱과 페이딩 스프레이 처리로 자연스럽고 빈티지한 느낌을 더했다. 이 안에 입기 좋은 프레스링 데님 베스트도 역시 마찬가지. 스트라이프 패턴의 뒷면과 일본산 코튼 데님을 사용해 섬세하게 직조해 부드러운 흐름을 강조했다. 덕분에 착용감 역시 훌륭하다. 마지막 하의로 티아나 데님 팬츠를 선보인다. 뒷허리 다트와 깔끔한 주름 처리가 돋보이며 은은한 워싱이 캐주얼하면서도 빈티지한 반면에 실루엣은 수트 팬츠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올봄 활용도 높은 셋업 한 벌 장만해야 한다면 랄프 로렌 컬렉션 데님 셋업이 답이다. 문의 02-3467-6560



Heel, so cool

아찔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발목을 돋보이게 해줄 아키텍처 힐 4.

(왼쪽부터 차례로)	재해석한 힐 디자인이 특징인 브라이트 크리스탈 페이턴트 슬링백 펌프스 70mm 2백24만원대 베르사체. 문의 02-3479-1294.
블랙 컬러에 레드 컬러 밑창이 돋보이는 케이트 클라이맥스 가격 미정 크리스찬 루부탱. 문의 02-6905-3795. 고무줄 스트랩으로 손쉽게 착용 가능한 VENUS 메탈 로고 레드 슬링백 힐 가격 미정 디젤. 문의 02-515-8770.	베르사체의 브라이트 크리스탈(Bright Crystal) 항수병을 모티브로

ART x DINING



NOR, 체험의 미학을 일깨워주다

미디어 아트와 파인 다이닝의 접목을 시도했던 실험적인 레스토랑 '카나렐'이 한 차원 높은 연모를 내세우며 '엔오일(NORI)'이라는 이름으로 미식 애호가들을 만나고 있다. 서울 도산대로에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물입장 돋보이는 미디어 아트로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독창적인 요리까지 만날 수 있는 콘셉트로 체험의 미학을 개척해나간다. 엔오일의 주 공간은 20m짜리 스크린에 흐르는 '사랑'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the course of LOVE'로 감각을 일깨우며 13가지 코스 요리의 시작을 알린다. 교객은 'Sign of Love', 'Understanding', 'Sweet Season', 3개의 색선으로 공간을 오가면서 미식 코스를 누리게 된다.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사일로랩과 콘텐츠 솔루션 기업 자이언트스텝이 공동 기획한 미디어 아트는 지극히 사적인 감정부터 진정한 사회적 이슈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랑'을 다채롭게 풀어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은 석재영 총괄 셰프가 구성한 13개의 코스 역시 '사랑'을 주제로 전개되는데, 동물 학대 이슈를 고려한 대체 식재료를 푸아그라 대신 활용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예약 필수. 문의 070-7720-0116 글 고정연



교토그래피(KYOTOGRAPHIE) 2025_1편

천 년 고도의 봄을 ‘사진 예술’로
물들이는 플랫폼의 미학



일본의 ‘천 년 고도’ 교토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놓고 우위를 따진다는 건 저마다의 성향과 방문 목적이 다를 테니 별 의미 없는 논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마 대다수의 나그네들은 벚꽃과 단풍이 곱게 물드는 봄과 가을을 ‘최애’로 꼽을 것이다. 혹시 봄에 교토를 찾을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 국제적인 사진 축제인 교토그래피(KYOTOGRAPHIE)가 열린다는 점을 기억해둘 법하다. 해마다 수십만 명이 발품을 파는 이 축제는 운이 좋다면 개막 시기에 벚꽃의 절정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도의 면면을 새롭게 발견하는 영감 충만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차역, 미술관, 사찰, 시장 등 교토 시내 곳곳을 다채롭게 수놓은 전시 공간은 출중한 무대 미술 미학과 더불어 각각의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빛나는 축제의 장이다. 올봄 ‘humanity’를 주제로 4월 12일 막을 연 교토그래피 2025는 5월 11일까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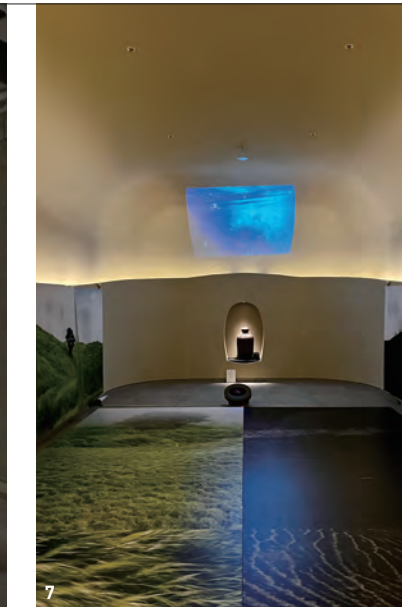
2

교토를 찾은 수 차례의 여정 중에서 운 좋게도 단풍의 시작은 스쳐간 적이 있지만 봄을 온전히 누린 적은 처음이다. 안 그래도 인기 많은 이 고도의 주요 호텔들이 저마다 ‘만살’을 외칠 정도로 인파가 들끓고 당연히 방값도 치솟는 시기에 사진 축제를 연다니, 참 용감하고도 영리한 기획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한다. 어느덧 13회를 맞이한 교토그래피(KYOTOGRAPHIE)는 2013년 프랑스 출신의 사진가 루실 레이보즈(Lucile Reyboz)와 일본의 조명 연출가 나카니시 유스케(Yusuke Nakanishi)가 함께 탄생시킨 사진 축제에 해마다 봄의 축복처럼 교토를 창조적 영감으로 물들여 오고 있다. ‘호모 포토쿠스(Homo Photocus)’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현대인의 삶에서 밀접하고 친숙한 사진을 활용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축제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순수 예술로서의 사진을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너머의 다양한 공간에서 매년 바뀌는 ‘주제’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다루는 전문적인 플랫폼이기도 하다. 3백 명 넘는 아티스트들이 참가하는 위성 사진 행사인 KG+, 글로벌 음악 축제인 교토폰니(KYOTOPHONIE) 같은 다른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확장 노선을 성공적으로 밟고 있기도 하다. 전략적 의도가 잘 녹아든 정교한 짜임새 아래 ‘자유로운 품격’을 발산하며 성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 민간 주도 플랫폼으로 10년 넘게 지속적인 나래를 펼쳐온 동력의 원천은 뭘까. 교토그래피는 첫 방문이지만 벚꽃 내음 가득했던 ‘사진 산책’의 풍부한 현장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은 것 같다.

교토만의 고유한 매력과 협업 전략의 어우러짐
루실 레이보즈가 교토를 처음 발견한 건 1990년대 말이었다고 한다. 블루 노트(Blue Note), 버브(Verve) 같은 음악 레이블과 앨범 커버 작업을 많이 했던 그녀는 당시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

“**종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커다란) 인쇄 시설에서 전시하는 건 교토그래피가 처음이에요. 1년 반 전쯤부터 협업을 준비했죠.”_J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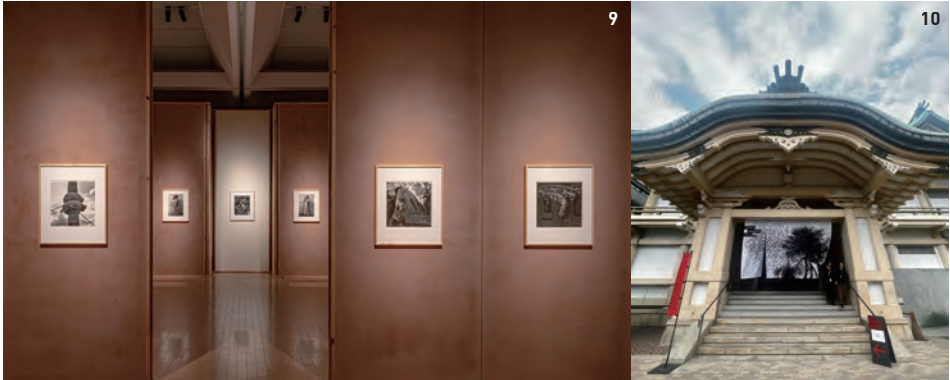
(1952~2023)의 오페라(Lie) 프로젝트로 교토를 처음 찾았고 나중에는 아예 일본에 정착하게 됐다. 조영 연출가로 역시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닌 나카니시 유스케도 일로 인연을 맺게 된다. 둘은 사진 축제로 유명한 프랑스 남부의 도시 아를(Arles)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2011년 도호쿠 대지진을 겪으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진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사진 문화를 더 꽃피울 수 있는 플랫폼을 스스로 개척해보자는 결심을 굳혔다(아를 국제사진축제는 예술가들이 주도해 1970년 탄생했다). 레이보즈와 나카니시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문화적 토양이 비옥하며, 곳곳을 무대로 변모시킬 수 있는 유럽 여러 도시와 비슷한 규모와 조건을 갖췄다는 점에서 ‘교토’를 택했다. 도쿄 위주도, 상업적 패어도 아닌 ‘글로벌 문화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열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인 만큼 다양한 상업 파트너와의 협업이 필수적이었기에 보수성이 짙은 교토에서 ‘판’을 벌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교토 사람들은 자존심 높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하다). 실제로 처음에는 프랑스 브랜드 아녜스베(Agnès b.) 정도를 제외하면 후원 업체도 거의 없이 시작했다고 한다. ‘humanity’를 주제로 내건 2025년 봄 교토그래피의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올봄 행사의 경우에 교토역을 위시해 미술관, 사찰, 역사적 의미를 지닌 전통 목조 주택(마치야), 옛 학교 건물 등 15개의 공간에 다국적 작가들의 전시가 펼쳐지는데(‘패스포트’로 불리는 티켓을 사면 모든 전시장에 기간 내 한 번씩 입장할 수 있다) 시그마, 후지 필름 같은 사진업계의 브랜드 말고도 다올, 사벌, 반클리프 아펠, 루이나, 바이레도, 에이스 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 걸친 브랜드들이 든든하게 뒤를 받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간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전시 관련 비용을 대주기도 하고, 유망 아티스트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예컨대 프랑스 삼페인 브랜드 루이나는 일본 사진가에게 레지던스와 전시 기회를 준다) 공동 기획으로 참여하기도 하는 등 후원과 협업의 사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진다. ‘전시’ 자체의 품격이나 수준이 떨어지게 하는 개입은 적어도 올해 축제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다.



다채로운 공간과 무대 미학의 시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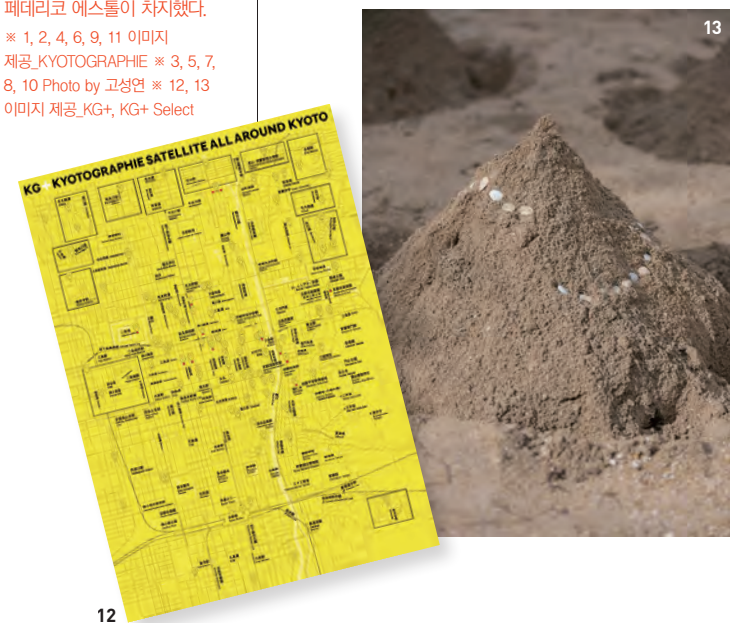
늘 검은 선글라스에 중절모 차림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프랑스 출신의 40대 아티스트 JR은 세계 각지의 유수 미술관에서 회고전이 열릴 정도로 인지도가 높지만 원칙적으로 상업적 브랜드와 협업하지 않는다(교토그래피에서도 후원 브랜드를 두지 않았다). 서울 롯데뮤지엄에서도 대대적인 순회전을 가졌던 그가 교토그래피 2025의 프리뷰가 열린 4월 11일 아침 교토역에 나타났다.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사진 축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현지 시민들과의 협업을 전격 공개하려고 교토역에 나타난 JR만큼 의미 있는 화제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 그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온 그는 교토 시민 5백여 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대형 사진 작품을 길게 입힌 벽 앞에서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누가 됐든 간에 교토에 오는 이들은 (대부분) 교토역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여정이 시작하는 곳이지요”라고 소감을 밝힌 그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JR 교토역에서 전시를 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특유의 너스레를 떨었다(JR은 장 르네Jean René라는 이름의 이니셜이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협업을 교토 시민들과 함께한 그의 뜻깊은 결과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과거에 인쇄소로 쓰였던 교토 신문 건물을 또 다른 전시 무대로 삼은 JR의 공공 프로젝트를 선보였는데, 이는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다. 이 오래된 건물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뉴욕, 아바나 등 여러 도시에서 현지인들과 교감하며 작업한 협업의 여정이 어느 전시처럼 나열되다가, 마지막에 블라인드를 걷어 올리면 비로소 숨을 헉 들이켜며 탄성을 내지르게 하는 ‘하이라이트’가 나온다. 옛 인쇄소의 육중한 기둥들이 자리했던 커다란 공간에 교복을 입은 소년, 야구복을 입은 소년, 신문을 읽는 중년 남성, 기모노 차림의 여성, 주름 자국이 선연한 노인 등 거대한 ‘사진 조각’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스토리를 읊어주는 자근자근한 음성의 페레이다가 울려 퍼진다. 서늘한 공간을 채우는 울림에 절로 압도된다. 단번에 프로젝트의 스케일을 짐작할 수 있는 이 공공 프로젝트는 다양한 군상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JR의 ‘크로니클’ 시리즈 ‘교토 편’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종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커다란) 인쇄 시설에서 전시하는 건 교토그래피가 처음이에요. 1년 반 전쯤부터 협업을 준비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에서 전시하는 마지막 아티스트가 될 예정입니다. JR 팀이 현재의 무대미술(scenography) 팀과 긴밀하고 심도 있는 소통으로 작업했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전시 디자인의 미학’은 교토그래피의 다른 특징점으로 꼽힌다. 대개 아트 페어나 미술관 전시의 무대 미술감독은 한두 명이 맡아 프로젝트를 이끌지만 교토그래피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시노그래피 팀이 10개가 넘는(한 시노그래피가 두 건의 전시를 맡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참여 작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그 자체로 예술인라 할 만큼 세심하게 공동여 전시를 연출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담는 전시 공간의 위용으로만 승부할 리는 없다. 교토그래피를 수놓은 각각의 전시는 놀랄 만큼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선사한다. 중남미 지역의 다양한 삶을 카메라로 포착해온 80대 멕시코 작가 그라시엘라 이투르비데(Graciela Iturbide), 아이보리공화국의 인물루언서 출신으로 점차 성장하는 예술가로서의 면모가 돋보이는 20대 래티티아 키(Laetitia Ky), 오키나와 출신의 작가로 성과 인증을 둘러싼 이슈를 날카롭고



1 세계적인 아티스트 JR이 교토 현지 시민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대형 사진 작품을 길게 입힌 벽. Photo by Kenryou Gu
2 교토그래피 2025 포스터. 이번 축제에 참가한 작가 중 하나인 이번 도일의 작품으로 선보인 버전이다. **3** 글로벌 사진 축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교토역에 나타난 JR의 모습.
4 교토신문의 옛 인쇄소 건물에 전시된 JR의 또 다른 대형 협업 작품. Photo by Kenryou Gu
5 벚꽃 잎이 실개천에 떠 가는 ‘꽃샘’을 볼 수 있는 건물인 타임스(TIME’S) 외관. 요시다 다마키와 마틴 파 전사가 열리고 있다. **6** 삼페인 브랜드 루이나의 ‘Ruinart Japan Award’ 수상 작가로 프랑스 랭스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거친 요시다 다마키 개인전 설치 모습. Photo by Takeshi Asano
7 위성 전시 KG+에 참가한 이와나미 유키 전시 《Fire Bird》.
8 사회·문화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사진가로 성장하고 있는 래티티아 키. **9** 다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그라시엘라 이투르비데 전시. 교토그래피의 명성 높은 시노그래피가 돋보인다. Photo by Kenryou Gu **10** 그라시엘라 이투르비데 전시가 진행 중인 교토시미술관 별관. **11** 교토의 사찰 겐난지의 탐두사원 중 하나인 료스쿠인에서 펼쳐지는 에릭 푸아트뱅의 교토그래피 전시. Photo by Takeshi Asano
12 KG+의 경우, 올해 교토의 1백여 개 공간에서 3백 명 넘는 작가의 전시가 쏟아졌다. **13** 유망 작가에게 수여하는 ‘KG+셀렉트(SELECT) 어워드’ 최종 후보 10인에 선정된 송상현의 작품 ‘Hospital’. ©SangHyun Song 올해 우승은 우루과이 작가 페데리코 에스톨이 차지했다.
※ 1, 2, 4, 6, 9, 11 이미지 제공. KYOTOGRAPHIE ※ 3, 5, 7, 8, 10 Photo by 고성연 ※ 12, 13 이미지 제공. KG+, KG+ Select

역동적인 렌즈로 담아내는 이시카와 마오(Mao Ishikawa), 유망 작가에게 주어지는 ‘KG+ 셀렉트 어워드’의 지난해 수상자로 농촌에서 생업에 종사해온 부모님을 모델로 등장시키는 대만 작가 허싱유 리우(Hsing-Yu Liu),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알리는 서정적인 사진 작업을 하는 미국 작가 애덤 루하나(Adam Rouhana), 아일랜드의 사진가이자 음악 프로듀서로 어머니에 얽힌 환상적인 서정시를 이미지로 승화시킨 작업으로 울림을 준 이번 도일(Eamonn Doyle) 등 저마다의 이야기는 절로 ‘집중’을 부르고 상상과 단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다. 사진 이론가이자 미술 비평가, 소설자인 존 버거의 말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불러낸다.” 이들 몇몇의 스토리텔링은 다음 호에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글 고성연(교토 현지 취재)



12

13

기획전_김리아갤러리(Kimreeaa Gallery) X 스타일 조선일보

빛 없이 있던 것

(Ce qui fut sans lumière)

2025년 봄 한가운데, 김리아갤러리에서는 이은영, 오다교, 박예림 등 3인의 작가와 함께하는 기획전 〈빛 없이 있던 것〉이 펼쳐집니다(2025. 4. 25~ 5. 24). 자연, 시간, 존재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저마다의 조형 언어로 꾸준히 버무려온 세 작가는 ‘흙’을 느슨한 공통분모로 지닌 채 자신만의 영감과 호흡으로 온전히 공간을 채우면서도, 전시 풍경을 전체적으로 보노라면 마치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 반짝이는 대화의 고리처럼 유기적 공감대가 은은하게 엮힙니다. 이는 작가들의 부단한 창조적 여정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진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의 본질에 가까이 가려는 ‘몸짓’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물의 보이는 면은 그저 하나의 단면일 뿐이고 흩어지는 심상으로 점철된 우리네 기억은 결코 완전하거나 순수한 회상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마주한 어떤 순간에서 비롯된 무형의 감각과 추억을 바탕으로 형상을 빚어내려는 몸부림에 다름 아닙니다. 안쓰럽도록 무한히 되풀이되는 존재의 근원을 향한 꿈과 회상을 주제로 삼은 프랑스 시인 이브 본푸아(1923~2016)의 시집 〈빛 없이 있던 것(Ce qui fut sans lumière)〉에서 이번 전시 제목을 가져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현존(présence)의 시인’이라는 수식어를 지녔던 이브 본푸아는 사물의 심층에 닿을 수 없는 회상의 무력함에도 ‘현재’의 어느 순간에 순수하게 다다르고자 애쓰는 ‘오래된 꿈’을 노래하며 시 안에서 자신의 몸짓을 이어나갑니다. “존재의 심연을 단순히 꿈꾸는 대신, 행동으로 실천하고 상상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시인처럼 이은영, 오다교, 박예림은 영원을 향해 거듭나는 ‘찰나’를 시공간에 조각하듯 창조적 모색의 몸짓을 펼쳐나갑니다.

바람이 단숨에, 저 아래, 달힌 집 위로 휘감아 올린 그 추억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을 거쳐 나온 화포의 커다란 소음, 지금 막 색채의 직물이 사물의 바닥까지 찢어진 듯하다. 추억은 멀어져가다 되돌아온다. _이브 본푸아(Yves Bonnefoy)의 시 ‘추억’ 중에서



1

이은영

Eun Yeoung LEE

먼저 갤러리 1층 전시 공간에서는 천장부터 부드럽고도 강렬하게 드리운 천에 목탄으로 그린 설치 작품이 차분한 존재감을 발하는데, 시적 은유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업해온 이은영 작가의 신작 ‘소음의 팽창’입니다. 이 작업을 지나쳐 다다른 한쪽 벽에 걸려 있는 도자 작업 ‘아주 짧은 산책길에 본 얼룩들’(2022). 2 이은영 작가의 도자 작업 ‘Veil of Stillness’(2025) 시리즈. 3 김리아갤러리와 (스타일 조선일보)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 〈빛 없이 있던 것〉은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열립니다. 참여 작가 박예림, 이은영, 오다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 문의_02-517-7713

먼저 갤러리 1층 전시 공간에서는 천장부터 부드럽고도 강렬하게 드리운 천에 목탄으로 그린 설치 작품이 차분한 존재감을 발하는데, 시적 은유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업해온 이은영 작가의 신작 ‘소음의 팽창’입니다. 이 작업을 지나쳐 다다른 한쪽 벽에 걸려 있는 도자 작업 ‘아주 짧은 산책길에 본 얼룩들’과 재미난 조화를 자아냅니다. “결국 개념의 끝에 남는 것은 이미지인지, 이미지가 불러오는 텍스트인지 모르겠지만, 부산물이 사라지고 남은 이미지와 텍스트, 재료적 감각의 형식을 이어보고 싶었습니다. 재료와 형태가 ‘날말’이 되어, 작품은 시 전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문장’을 만들어 내고, 공간에 놓여 ‘조형시’가 됩니다.” 한때 존재했으나 사라진 것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관찰하고, 이 과정에서 비롯된 심상의 정수를 조형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이은영은 회화를 전공했지만 가장 드로잉적인 재료라고 느낀 흙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입체 작업을 자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그녀의 가마를 거쳐 나온 도자 작업들이 조형시의 ‘날말’처럼 1층의 또 다른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재료를 만지며 감각하는 동안 머릿속 이미지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작품의 형태도 바뀝니다”라는 작가의 설명은 예술에서 ‘진실’은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신의를 뜻한다는 문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3

2층 주 전시 공간에서는 박예림과 오다교의 작품이 서로 마주 보면서 흥미로운 앙상블을 선사합니다. 두 작가는 같은 물성의 흙과 모래로 빚어낸 커다란 평면 작업을 선보였는데, 저마다의 질이 실린 존재감을 뽐어내는 설치 풍경이 절로 시선을 잡아킵니다. 2024년 마지막과 2025년 시작에 걸쳐 산행을 즐긴 박예림 작가는 이번 전시에 ‘겨울을 담아낸’ 작업을 내놓았습니다. 작가 이력의 초기부터 쓴 재료인 모래는 알갱이가 모여 단단한 암석을 이루기도 하고, 솟아오르는 물줄기가 되기도 하고, 과거의 시간을 가져오는 바람이 되기도 했는데, ‘겨울’의 희뿌연 산을 통해서도 다채로운 변주를 이어갑니다. “겨울의 모습은 늘 가까이 있지만 복제하기 쉽지 않은 대상인 것 같습니다. 금방 쌓이다 녹아버리고, 살갓을 스쳐 지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되어 땀이지요. 빠르게 변주하는 특성을 형상화하는 데 집중했고, 이러한 자연의 표면적 형상과 더불어 산행을 하면서 생겨난 이야기도 함께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서리(Hoarfrost)’, ‘흰 막이 닿는 자리’, ‘아침에 뜬 겨울’ 같은 제목의 서늘하고도 다정한 느낌을 품은 작품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모래 알갱이

1 ‘당신의 초행을 영원할 표지, 광목천에 먹, 호분, 2025. 2 모래를 주 매체로 작업하는 박예림 작가가 ‘겨울 산행’에 영감받아 내놓은 신작들. (왼쪽부터) ‘녹은 물과 고랑’, 145.5×112.1cm, 한지에 모래와 호분, 2025. ‘아침에 뜬 겨울’, 145.5×112.1cm, 한지에 모래와 먹, 호분, 2025. ‘흰 막이 닿는 자리’, 116.8×91cm, 한지에 모래와 호분, 2025.



2

박예림

Yelim PARK

들이 불고 떨어지나간 흔적, 먹을 머금은 장지 뒤틀면의 표현, 소금으로 피어난 형상 등 우연히 생겨난 모습이 겨울의 일면에 다가갈 수 있게 해줬다는 작가의 설명처럼 자연의 신비는 화가의 몸짓과 만나 화면에 순간의 인상과 감각을 붙잡아두는 마법을 부리는 듯합니다. 눈에 덮인 반투명한 지대, 소원을 빌기 위한 발걸음, 정상으로 안내하는 무리 속 깃발 등 작가가 접했던 곳들의 모습을 다시 꺼내 시간과 기억의 흐름을

비구상적으로 담아낸 이 시적인 시리즈는 작가가 고민을 살짝 두고 올 수 있었다던 겨울 산행을 둘러싼 감각과 경험,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상상하게 만들고, 어느덧 사색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1

오다교

Dakyo OH

흙의 물성을 살린 탐스러운 질감과 도톰한 덩어리감이 화면을 감싸는 작업으로 자연의 무궁무진한 스펙트럼과 깊이를 탐구해온 오다교 작가는 작고한 이브 본푸아의 새로운 시집을 보는 듯한 작품 목록을 내립니다. 장지에 모래와 숯을 재료로 쓴 ‘빛 없이 있던 것’이란 제목의 작품을 비롯해 ‘꿈의 미광’, ‘어떤 돌 하나’, ‘오늘 저녁 보다 많은 빗’ 등 신작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작업하게 된 계기는 일상의 한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원형 화분의 흙을 유심히 보다가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이 탄생하는 우주를 만나게 되었고, 이 조우는 흙의 방대한 에너지와 상징적 깊이를 탐구하는 작업 세



1

1 ‘출현(Lavènement)’, 130.3×162.2cm, 마대에 흙과 숯, 2024. 2 (왼쪽부터) ‘솔가(Lorée des bois)’, 145.5×97cm, 마대에 모래, 숯, 인료, 2025. ‘어떤 돌 하나(Une pierre)’, 80.3×116.8cm, 마대에 흙, 모래, 숯, 인료, 2025. ‘빛 없이 가는 광채(L’étincellement qui va sans lumière)’, 145.5×110cm, 마대에 흙, 숯, 인료, 2025.

계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오다교 작가는 자신의 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자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흙 특유의 질감과 촉각을 작업에 짚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은은하고도 역동적인 조화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며 만물에 방대한 영향을 미치는 땅의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아래 움직이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주시하며 그에 대한 반응에 예민하게 깨어있으려 한다는 오다교는 ‘흙의 미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에너지는 우주의 텅 빈 공간이 아닌 힘과 답이고 서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흙이라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재료로 가장 위에 있는 우주를 표현했을 때, 그것이

결국 같은 모습이 되는, (궁극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의 또 다른 전시 공간에서는 스케일이 상대적으로 ‘작은’ 세 작가의 작품이 어우러집니다. 존재의 근원을 떠올리게 하는 대지에서 비롯된 물성을 조형 언어로 삼지만 전혀 다른 창조적 소산으로 빛을 발하는 이들의 작업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신념이고, 나아가 예술에 대한 신념이라는 한 문화가의 절도 있는 문장이 떠오르는 전시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 감각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을 가만히 곱씹게 됩니다. 글 고정연



2



2

1 ‘소음의 팽창’, 가변 설치, 천 위에 목탄, 2025. 벽에 걸려 있는 작품은 ‘아주 짧은 산책길에 본 얼룩들’(2022). 2 이은영 작가의 도자 작업 ‘Veil of Stillness’(2025) 시리즈. 3 김리아갤러리와 (스타일 조선일보)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 〈빛 없이 있던 것〉은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열립니다. 참여 작가 박예림, 이은영, 오다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 문의_02-517-7713

Ce qui fut sans lumière

2025. 4. 25 ~ 5. 24

김리아 갤러리

Kimreeaa Gallery

New Wonderland

실제보다 더 사람 같은 ‘조각상’을 만난다. 현대미술 조각가 론 뮤익(Ron Mueck)의 아시아 최대 규모 회고전 이야기다.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작가론 뮤익의 시기별 주요 작품을 짚으며 지난 30년의 궤적을 따라간다. 현대 조각의 흐름과 변화를 좇는 시간이기도 하다.



현실과 비현실의 사유

1986년부터 영국에서 활동해온 호주 출신 현대 조각가 론 뮤익은 실제에 가까운 표현과 인체 사이즈의 왜곡으로 관람객에게 생경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예술가다. 초대형 사이즈부터 손바닥만 한 작품까지 다양한 크기의 인체 조각을 통해 인간의 존재,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며 현대 조각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조각상은 생생한 인간의 형상을 띠어 오히려 비현실적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현대적 재료와 전통적 방식으로 정밀하게 조각된 작품은 세밀한 피복질, 훔날리는 머리가락, 주름진 옷차림까지 그냥 지나칠 만한 모든 부분을 정교하게 묘사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감정까지 고스란히 담아낸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표현력은 현대인이 겪는 외로움, 불안감 등 내면의 유약한 감정을 기반하며 인간에 대한 통찰과 철학적 메시지를 전한다. 무엇보다 30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 수가 총 48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가 기술적 완성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는 론 뮤익을 대표하는 조각 작품과 함께 스튜디오 사진 연작, 다큐멘터리 필름 등 총 24점을 망라한 대서사가 펼쳐진다. 먼저 미술관 5전시실을 들어서자마자 처음으로 마주하는 론 뮤익의 대표작 ‘마스크 II’는 두상이 반침대와 맞닿아 눌러 있고 살짝 열린 입에서는 숨소리가 들리는 듯한 작각을

불러일으킨다. 사실적인 디테일로 가득한 얼굴과 달리 머리 뒷부분은 텅 비어 있어 작품이 가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든다.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나뭇가지를 든 여인’은 불규칙하게 쌓아 올린 나뭇가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허리가 휜 한 여인을 포착한다. 하얗고 보드라운 피부에는 날카롭고 거친 나뭇가지의 흔적이 남아 있고, 벼룩한 얼굴에는 나뭇가지의 무거운 무게에 비례한 삶의 무게가 서려 있다. 의도적으로 나뭇가지보다 사람을 작게 표현해 기묘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세로 6.5m, 가로 3.95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의 ‘침대에서’는 어느 작품에서 느낄 수 없는 압도적 힘이 느껴진다. 이 작품의 묵직한 존재감은

“작품의 표상을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내가 포착하고 싶은 건 삶의 깊이다”
_론 뮤익

단순히 형태적 정교함과 웅장한 스케일에서 비롯된 물리적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작품 속 인물은 마치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처럼 보이며,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다른 곳을 응시한다. 우리의 존재는 그녀를 방해하지 못한다. 닿을 듯 닿지 않는 시선의 차단은 작품 사이즈와 별개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고 시선을 오래 머물게 한다. ‘침대에서’와 대조를 이루는 크기와 구도가 특징인 ‘치킨/멘’은 형태적 크기를 축소해 만든 작품 중 하나다. 작품의 크기부터 가구 배치, 남자의 신체와 자세, 닭의 모습과 눈빛까지, 이 작품을 이루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며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불편한 긴장감으로 인도한다. 시선을 잠시 땀다



가 다시 보면 의자가 뒤집혀 남자는 쓰러지고 닭은 깃털만 남긴 채 사라져버릴 것 같은 기분. 닭은 노인의 편집증이 만들어낸 환영일지도 모른다. 개연성 없는 상상이 주제가 될 수 있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더욱 흥미롭다. 제5 전시실 끝에서 만난 대망의 ‘매스’는 이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1백 개의 대형 두개골을 커켜이 쌓아 올린 시각적 충격을 안겨준다. 매스(mass)의 사전적 의미는 더미, 무더기. 군중을 의미하고 종교적 의식을 뜻하기도 한다. 두개골의 상징성 역시 다중적이다. 두개골은 인간의 삶을 고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대중문화에 빈번히 등장해 친숙한 매개체다. 론 뮤익은 “인간의 두개골은 복잡한 오브제입니다. 한눈에 집중할 수 있는 강렬한 아이콘이기도 하고요. 친숙하면서도 낯선 매력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무의식적으로 외면할 수 없게 만듭니다”라고 말한다. 특히 작가는 ‘매스’를 전시할 때면 전시 장소의 건축적 특성에 맞게 작품을 드러내는데, 이번에도 역시 현대미술관의 공간을 고려해 풍성한 실루엣으로 완성했다. 3층 높이의 깊고 넓은 공간을 하나의 면처럼 감싸며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는 마치 유기적 구조를 갖춘 듯 보인다. 그뿐만이 아니다. 2013년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에서 처음 공개한 ‘배에 탄 남자, 어둠 속에서 바깥을 응시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담긴 어두운 장소’ 등을 전시하며, 사진가 고티에 드블롱드가 존 뮤익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제6 전시실에서 모두 감상할 수 있다. 2편의 다큐멘터리 필름에서는 실제로 작가가 25년간 펼쳐온 작품 세계와 창작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과장되게 크거나 실제와 달리 매우 작게 표현하는 그만의 방식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관람객에게 묘한 잔상을 남긴다. 전시는 7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에디터 김하얀

1 론 뮤익의 대표작이자 자화상을 담은 ‘마스크 II’, 2002, 혼합 재료, 77×118×85cm, 개인 소장.
2 ‘나뭇가지를 든 여인’, 2009, 혼합 재료, 170×183×120cm,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컬렉션.
3 거대한 크기의 ‘침대에서’와 의도적으로 사이즈를 줄여 완성한 ‘치킨/멘’을 한 공간에 배치해 더욱 극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전시장 내부 모습.
4 론 뮤익이 작업하는 모습을 담은 연작 사진을 전시한 공간.
5 제6 전시실에서는 존 뮤익이 실제 작업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6 1백 개의 두개골을 쌓아 완성한 ‘매스’, 2016~2017, 유리섬유에 합성 폴리머 페인팅, 가변 크기, 빅토리아 국립미술관, 멜버른, 펠턴 유증, 2018.
7 론 뮤익이 ‘치킨/멘’을 작업하는 모습을 사진가 고티에 드블롱드가 포착한 모습.
사진 © Fondation Cartier
© MMCA © Ron Mueck
/ Photographer © Kiyong Nam © Gautier Deblonde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1984년부터 론 뮤익을 포함해 수많은 미술가를 발굴하고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는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시대를 반영한 디자인부터 사진, 그림, 비디오, 공연 예술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현대 예술을 향한 아낌없는 찬사와 지원을 보내고 있다. 이렇듯 예술가를 위해 끝없는 영감을 부여하는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지난해 설립 40주년을 맞이해 오로지 예술을 위한 랜드마크를 새로 개관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2025년 말 공개할 예정인 이 획기적인 예술 공간은 파리의 유서 깊은 장소, 팔레 루아얄 광장(Place du Palais-Royal)에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의 아이디어로 구현된다. “예술가의 창의성을 끌어올려주는 조력자 역할을 특목히 해낼 예정입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 대담한 건축물과 차별화된 공간, 다채로운 전시 형식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전시와 함께 예술의 경지에 오른 전시 공간을 말입니다.” 1994년 라스파이 대로(Boulevard Raspail)에 세운 공간에 이어 전 세계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장소로 발돋움할 것이다.



Innovative Engineering

IWC는 엔지니어링과 기술력을 강조하는 워치메이커로 올해도 정밀하고 기능적인 시계 제작을 목표로 여러 분야에 적합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과거 제랄드 겐타의 인제니어 디자인을 꺼내와 새롭게 선보이는 한편, 끊임없는 소재와 기술 개발에 대한 DNA를 공유하는 메르세데스 AMG와의 협업 혹은 그로부터 영감받은 컬렉션까지. 이번 신제품으로 IWC가 워치메이커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비전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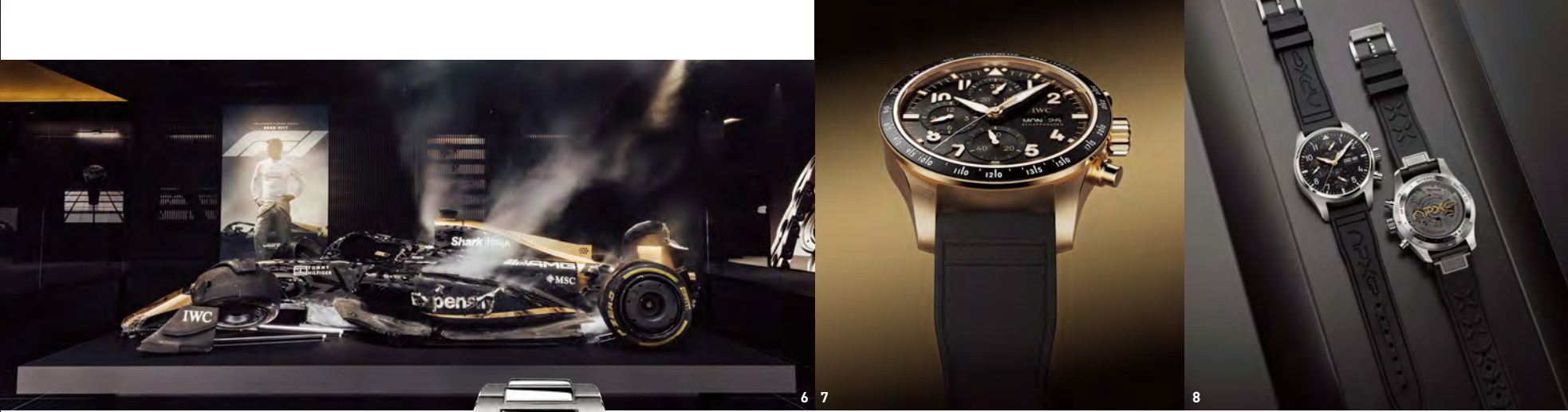
IWC 샤프하우젠, 인터내셔널 워치 컴퍼니라는 단순한 이름에는 그 이상의 세계관이 존재한다. 바로 시간을 공학적으로 해석하고 예술적으로 완성하는 철학이다. IWC는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구조적 미학에 집중해 보기 드문 하이엔드 워치메이커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는 올해 IWC가 선보인 뉴 인제니어 컬렉션의 탄생 배경과도 밀접상통하는 부분이다. 인제니어는 변화와 도약의 시기인 1950년대에 탄생했다. IWC의 테크니컬 디렉터였던 알베르트 펠라톤(Albert Pellaton)은 첫 자체 제작 오토매틱 무브먼트 개발과 동시에 최초 민간 항자성 손목시계인 인제니어를 출시했다. 최초의 인제니어 Ref. 666은 간결하고 둥근 케이스 디자인이 특징이었다. 이후로 몇 번의 발전을 거듭했지만 1970년대 스위스 시계 산업의 난항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IWC는 외부 디자이너를 물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유능한 워치 디자이너 제랄드 겐타(Gérald Genta)와의 역사적 만남이 이뤄진다. 1976년 제랄드 겐타의 인제니어 SL(Ref. 1832)이 완성되었다. IWC는 당시 40mm의 케이스 사이즈로

‘정보’라는 별칭을 얻은 해당 모델을 ‘엔지니어’를 위한 시계로 한정해 마케팅했으며 제랄드 겐타의 디자인은 과감하고 미래 지향적이었기에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인제니어는 제랄드 겐타의 전성기였던 1970년대에 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깊으며 이후 워치 애호가들에게 다시 인정받는다. 57개의 나사 홈이 있는 스크루 베젤, 독특한 패턴 다이얼, 일체형 H-링크 브레이슬릿 등 차별화된 미적 요소는 제랄드 겐타의 상징적 디자인을 반영한다. 또 스틸 스포츠 워치에 대한 그의 비전과 현대 럭셔리 스포츠 워치에 대한 트렌드를 정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올해 IWC는 이 중요한 인제니어 컬렉션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 선보인다. IWC의 전통적인 워치메이킹 기술과 제랄드 겐타의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디자인을 현대적 기술로 구현했으며 혁신적으로 발전한 워치메이킹 기술을 더해 말 그대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뤄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리뉴얼’을 넘어 인제니어라는 이름이 지닌 본질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정의할 결과다.

- 1 올해 워치스 & 원더스 IWC 부스. 2 18K 5N 골드 소재로 출시된 인제니어 오토매틱 40. 3 블랙 세라믹 소재의 인제니어 오토매틱 42. 4 인제니어 퍼페추얼 캘린더 41. 5 새로운 35mm 케이스의 인제니어 오토매틱 35. 6 레이싱 카가 설치된 워치스 & 원더스 IWC 부스. 7 파일럿 워치 파르모스 크로노그래프 41(Ref. IW388309). 8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APXGP(Ref. IW388116). 9 인제니어 오토매틱 40 그린 다이얼 스페셜 에디션. 10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APXGP(Ref. IW378009). 11 IWC의 CMO(Chief Marketing Officer) 프란치스카 그젤 에터린(Franziska Gsell Etterlin).

소재와 기술, 디자인의 완벽한 융합

이번 인제니어 컬렉션의 모델들은 고유의 색을 뚜렷하게 지니면서도, 통일된 디자인 언어를 공유한다. 먼저 관람객들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인제니어 오토매틱 42. 가공이 까다로운 세라믹을 완벽한 실루엣으로 완성했는데, 이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 순수 세라믹 케이스 구조를 택한 덕분이다. 케이스 링, 베젤, 케이스 백 링은 모두 세팅 마감 후 부드럽게 샌드 블라스트 처리해 고급스러운 무광 느낌을 살리고 모서리 주변에만 섬세한 폴리싱 작업으로 입체감을 부여했다. 이는 IWC의 탄탄한 기술적 혁신과 내공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 가운데 베젤에 5개의 기능성 스크루 같은 제랄드 겐타 인제니어의 디자인적 DNA 역시 놓치지 않았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크라운 가드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케이스 사이즈는 42mm로 더욱 확장해 확실한 존재감을 부여했다. IWC 자체 제작 82110 칼리버로 구동하며 무려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소재 변형에 있어 인제니어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



인 골드 버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지름 40mm 케이스 사이즈로 완성했으며 18K 5N 골드 소재로 케이스와 일체형 브레이슬릿까지 마감했다. 인제니어의 디자인적 요소를 모두 넣었으며 애플리케이션과 골드 도금 핸즈 모두 슈퍼 루미노바*로 코팅해 가독성을 높였다. 1백 2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자체 제작 32111 칼리버로 구동한다. IWC만의 장기인 퍼페추얼 캘린더 역시 인제니어에 담았다. IWC가 오랜 시간 걸쳐 완성해온 퍼페추얼 캘린더 기술은 인제니어 컬렉션을 만나 더욱 정교하고 직관적으로 구현되었다. 케이스는 지름 41mm로 완성했으며 작은 선과 정사각형으로 구성된 독특한 구조를 담은 다이얼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캘린더 정보는 3·6·9시 방향에 표시되며 서브 다이얼에는 월과 퍼페추얼 문패이즈를 결합했다. 이는 모두 인제니어 디자인을 고려해 오랜 시간 공들여 계산한 것이다. 역시 문패이즈 디스플레이 오차는 5백77.5년에 단 하루밖에 나지 않으며 윤년 캘린더를 제공하고 하나의 크라운을 통해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다. 기능과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강조한 앞 모델들과 달리, 인제니어 오토매틱 35는 지름 35mm 케이스로 절제된 조형미와 섬세한 밸런스를 통해 컬렉션의 폭을 넓힌다. 기존 인제니어 오토매틱 40의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재현했으며, 섬



세한 마감 처리와 정교하게 세공한 다이얼로 인제니어 컬렉션의 고유한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담았다. 골드, 스테인리스 스틸에 블랙 다이얼, 실버 다이얼까지, 총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2종의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에는 스틸 애플리케이션 및 로동 도금 핸즈, 18K 5N 골드 버전에는 손금 애플리케이션 및 골드 도금 핸즈를 사용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오토매틱 와인딩 방식과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47110 칼리버로 구동한다. 정밀한 엔지니어링과 모터 스포츠 정신을 물려받은 IWC에 더없이 뜻깊은 한 해다. 올해를 모터 레이싱의 상징인 포뮬러 원™(Formula One™) 스토리를 담은 애플 오리지널 필름 〈F1〉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Mercedes-AMG PETRONAS) F1® 팀의 엔지니어링 파트너로 협력해온 IWC는 당연히하게도 이 영화의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영화에 나온 촬영용 워치 제작뿐 아니라 이로부터 영감받은 신제품들을 선보인다. 조셉 코신스키가 감독을 맡은 이 영화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포뮬러 원™ 경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며 주인공은 배우 브래드 피트가 맡았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소

속된 가상의 팀, APXGP가 등장하며 그의 시그니처 컬러인 강렬한 그린 다이얼이 돋보이는 인제니어 SL(Ref. 1832) 기반의 커스터마이징 시계를 착용하는 데, 촬영용으로 제작된 이 시계는 IWC 샤프하우젠과 브래드 피트, 그리고 빈티지 시계를 활용한 맞춤형 시계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클로이스터 워치 컴퍼니(Cloister Watch Company)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IWC는 이 영화용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인제니어 모델을 스페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인제니어 오토매틱 40(Ref. IW328908)이다. 1천 피스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는 이 특별한 워치는 영화 주인공이 착용한 것과 유사한 컬러 코드 조합인 그리드 패턴의 그린 다이얼과 골드 도금 애플리케이션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영화 〈F1〉의 가상 팀, APXGP에서 영감을 받은 3종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한다. 파일럿 워치 파르모스 크로노그래프 41(Ref. IW388309)은 영화에서는 댄스 이드리스가 연기한 조슈아 피어스가 착용하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APXGP(Ref. IW378009)는 지름 43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장착했으며,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APXGP(Ref. IW388116)는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결합해 선보인다. 두 모델 모두 골드 APXGP 팀에 한정하는 시계로 케이스 백에 글드 컬러로 프린트한 APXGP 팀 로고를 확인할 수 있다. 크로노그래프에는 APXGP 인그레이빙을 적용한 블랙 러버 스트랩을 매치했다. 문의 1877-4315

INTERVIEW

프란치스카 그젤 에터린(Franziska Gsell Etterlin, Chief Marketing Officer)

워치스 & 원더스 IWC 부스는 늘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미학을 자랑한다. 워치메이킹에 대한 혁신성과 심플함에서 비롯된 미학을 잘 담아낸 그들만의 컬러가 뚜렷하다. IWC의 CMO(Chief Marketing Officer) 프란치스카 그젤 에터린 역시 그랬다. 2015년부터 IWC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를 이끌고 있는 그녀는 전 세계 7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1백 명에 가까운 마케팅 에티튜드 에디터를 맞이했다.



Q 2023년에도 인제니어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2년 만의 출시다. 맞다. 2023년 론칭은 정말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제랄드 겐타의 첫 오리지널 인제니어는 사실 실패작이었다. 출시 당시 단 5백98개만 생산되었고 그 이후 오랫동안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23년 이 역사적인 워치를 부활시키면서 가장 눈부신 실패작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단순한 복각은 아니다. 그 헤리티지를 지키면서도 현대 기술을 결합하기 위해 무려 4년에 걸친 디자인 프로세스와 연구가 필요했다. 이를 통해 제랄드 겐타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21세기의 현대적인 스포츠 워치로 재해석해 성공적으로 론칭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적은 수의 컬렉션을 출시했다. 불과 네 가지 모델과 다이얼 컬러,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티타늄뿐이었다. 하지만 반응은 뜨거웠고, 우리는 또 한번의 신제품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올 해는 인제니어 컬렉션을 완전한 정규 컬렉션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Q 정규 컬렉션이란 어떤 의미인가? 오토매틱 40에서 시작해 사이즈, 소재, 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확장을 시도한 것이다. 35mm 모델부터 살펴보면 이는 디자인 팀에게 매우 도전적인 일이었다. 단순사이징하는 과정에서 기존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완벽한 착용감까지 유지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소재 역시 18K 5N 골드와 풀 블랙 세라믹을 처음 적용했다. IWC는 워치업계에서 컬러 세라믹을 최초로 도입한 브랜드라 이를 구현하는 것에서만은 자신 있었다. 마지막으로 컴플리케이션 면에서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을 인제니어 라인에 처음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와 관련된 스페셜 에디션도 출시했다. 레이싱 세이지(Racing Sage)라 불리는 이 그린 다이얼 컬러는 브래드 피트와 뉴욕에서 함께 개발한 색상으로 그는 실제로 영화에서 1976년 오리지널 겐타 모델을 착용했는데, 컬러만 자신의 취향에 맞게 변경한 것이다. 이로써 인제니어 컬렉션이 완전해졌다고 생각하며 다음 도약을 기다릴 뿐이다.

Q 35mm 인제니어를 착용해봤을 때 매우 인상 깊었다. 스포츠 워치 디자인인데 얇은 손목에도 잘 어울리는 것은 물론 착용감도 훌륭했다. 혹자는 이를 ‘여성용 시계’라고 하기도 하는데 35mm 인제니어는 성별을 가르는 워치가 아닌 단순히 ‘손목이 슬림한 사람’을 위한 시계다. 남성들 역시 케이스가 작은 워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 제품 전략 팀만 봐도 젊은 남성 직원이 많고, 그들 대부분이 35mm 모

델을 선호한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는 생각보다 수많은 과정을 반복한다. 실제로 우리는 더 큰 사이즈도 실험했지만 결국 이것이 완벽한 사이즈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해서 35mm가 탄생했다. 개인적으로 35mm 인제니어를 정말 좋아한다. 특히 마음에 드는 점은 이 시계가 절대 ‘작은 시계’는 아니라는 것.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커다란 존재감을 전한다.

Q 앞서 언급한 한정판 인제니어가 탄생된 배경인 영화 〈F1〉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협업 과정이나 계기가 궁금하다. IWC 샤프하우젠은 현재까지 포뮬러 1®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메르세데스-AMG F1® 팀인 페트로나스 F1® 팀과는 무려 12년째 협업하고 있다. 그래서 애플 오리지널 필름에서 〈F1〉 영화를 제작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IWC 샤프하우젠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이번 영화를 잘 만들기 위해서 조셉 코신스키 감독은 소니(Sony)와 함께 17개월에 걸쳐 특수 카메라를 개발하고 사용했다. IWC는 영화에 출연한 촬영용 워치를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한 워치 엔지니어로서 그를 서포트했다. 우리는 늘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로 선택되는 브랜드다. 우리는 시계 제작 엔지니어이자 파인 워치메이킹 엔지니어이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로 영화 음악은 전문가 한스 짐머(Hans Zimmer)가 작곡했다. 그 역시 음악 전문가다. 그리고 IWC의 프렌즈이기도 하다.

Q IWC는 10년 넘게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F1® 팀과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모터 스포츠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궁금하다. 기록과 시간에 대한 정확성이 중요한 모터 스포츠는 워치 브랜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그 두 영역 간의 아이덴티티를 공유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뮬러 1®과 계약 기반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하지만 마케팅 업무를 하다 보면 성과 역시 정밀하게 살펴볼게 된다. 특히 포뮬러 1®처럼 강력한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과연 어떤 투자 대비 수익을 거둘지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광고 효과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포뮬러 1® 팀과 연계된 IWC 워치들 역시 성과가 매우 좋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파트너십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두 시즌이 더 남아 있으니 계속 우리의 협업을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에디터 정성민(제네바 현지 취재)

Get The List

GRAFF

모던하고 구조적인 디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 링. 위는 화이트 골드에 파베 다이아몬드를 레이어링한 밴드 8백13만1천원, 아래는 로즈 골드에 파베 다이아몬드를 트리플로 레이어링한 링 1천1백47만원 모두 그라프 문의 02-2256-6810



RALPH LAUREN COLLECTION

2025 스프링 시즌을 맞아해 자동차 디자인에서 영감을받은 섬세한 디테일을 바탕으로 탄생한 새로운 핸드백 라인.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이 살아 있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송아지가죽으로 제작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멋스러워지는 더 랄프 스몰 슬더백 3백60만원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CHANEL

스테디셀러이자 복숭아빛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메이크업 베이스로 유명한 '에콜라 프리미에 라 바즈 메이크업 베이스'의 라이트 버전. 덜고 습한 한국 날씨에 맞게 더 가볍고 산뜻한 포뮬러로 피부를 편안하게 하며 하루 종일 균일한 피부 톤을 유지해준다. 30ml 9만2천원 **샤넬** 문의 080-805-9638



PRADA

2007년 처음 등장한 이후 수많은 새롭게 진화해오면서도 고유의 실루엣과 매력을 지닌 갤러리아 백. 이번 시즌에는 다양한 소재와 스타일로 변신했는데, 이 제품은 스웨이드 소재로 전·후면의 프린지가 역동적인 느낌과 여름 휴양지 감성을 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0



VACHERON CONSTANTIN

우아하면서도 상징적인 매력이 묻어나는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하이 워치메이킹 기술을 녹아낸 아이코닉한 컬렉션으로 창립 270주년을 맞아해 18K 화이트 골드 소재로 2백70피스 한정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42.5mm 사이즈 케이스에 간소화한 레트로그레이드 표시와 6시 방향 문페이즈가 매력적인 패트리모니 문페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7천 8백50만원 **바쉐론 콘스탄틴** 문의 1877-4306

TOD'S

브랜드의 장인 정신이 깃든 백으로 일부분은 이탈리아 전문 장인이 직접 옥수수 잎을 꼰아 만들었다. 나파 람버스 소재로 제작해 매우 부드럽고 가벼운 것이 특징인 우븐 바스켓 디테일의 라피아 백 1백71만원 **토즈** 문의 02-3448-8233



이 계절과 무드를 모두 담은 특별한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YOUNG**

FENDI

라이트 브라운 컬러의 에이어스 소재와 인솔, 힐로 완성한 샌들로 F자 형태의 가느다란 스트랩이 발등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라이트 브라운 에이어스 미디엄 톱 샌들 1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TIFFANY & CO.

잠금 모티브를 현대적이고 모던하게 재해석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해 우아함을 선사하는 티파니 락 밴글 가격 미정 **티파니** 문의 1670-1837 에디터 성경민



Have a Nice Trip!

견고하게 설계된 내구성과 마감은 기본, 뛰어난 마감까지 갖춘 여행 가방은
단연 여행 메이트 0순위다.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탈착 가능한 슬더 스트랩을 더해 이동성을 높였으며 내은 그린 톱 핸들이 포인트인 GG 수프림 캔버스 미디엄 더플백, 44×28.5×24.5cm, 가격 미정 **구찌**, 문의 02-3452-1921.
가방 상단의 플랫 포켓, 하단의 지퍼 포켓 등 수납력이 좋아 보조 가방으로 제격인 스웨이드 소재 크로스 보디 백, 30×19×12cm, 가격 미정 **토즈**, 문의 02-3438-6008. 메신저 백에 레이어드한 로프 모티브의 나파 가죽 소재 백 참 1백15만원 **프라다**, 문의 02-3218-5320.
가방 전면의 비정형 홈은 스크래치에 강하며 디자인적 요소가 되어준다. 19 디그리 알루미늄 인터내셔널 캐리온 캐리어, 56×35.5×23cm, 1백85만원 **투미**, 문의 02-539-8160.
무소음 휠, 소가죽 레더 핸들, TSA 잠금장치를 장착한 익스트림 3.0 트롤리, 55×38×23cm, 2백38만원 **몽블랑**, 문의 1877-5408.
화재에 강하고 가벼운 무게가 장점인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 에메랄드 그린 컬러 수트케이스, 55×40×23cm, 1백98만원 **리모와**, 문의 02-546-3920.
아이코닉한 모노그램 패턴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롤링 트렁크, 55×39×24cm, 1천2백20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에디터 **김하얀**

The Heritage

샤넬이 서울의 심장부에서 또 하나의 예술적 공간을 선보였다. 강북의 대표적 랜드마크이자 새롭게 태어난 신세계백화점의 럭셔리 쇼핑 공간 '더 헤리티지(The Heritage)'에 새로운 패션 및 위치 & 화인 주얼리 부티크를 4월 9일 정식 오픈한 것. 이곳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샤넬 하우스의 정수를 고스란히 담아낸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샤넬이 서울 강북의 문화적 중심지이자 새롭게 조성된 신세계백화점 '더 헤리티지(The Heritage)'에 새로운 부티크를 2025년 4월 9일 오픈했다. 이번 부티크는 역사적 랜드마크 건물을 복원해 구성된 공간으로,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샤넬과 오랜 기간 협력해온 피터 마리노(Peter Marino)가 디자인을 맡아, 과거의 유산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정교한 작업을 선보였다. 내부는 가브리엘 샤넬 여사의 파리 아파트와 강릉가 31번지의 아르데코 계단에서 시작해, 샤넬의 시각적 세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러한 요소들과 함께, 웅장한 규모와 클래식한 장식 요소가 돋보이는 헤리티지 빌딩 고유의 건축양식도 매장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아하고 정교한 물딩이 있는 기존 천장 복원부터 고풍스러운 입구 갤러리, 부조 타일과 벽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특징을 살리기 위한 세심한 보존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요소를 배경으로, 건축가 피터 마리노는 대비와 균형을 통해 샤넬의 과감한 팔레트와 소재의 조화를 이루어 현대적인 감각을 온전히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브론즈 메탈, 수작업으로 광택을 낸 표면, 검은 용암석의 프레임과 문, 고급스러운 벽 마감재는 직조된 실크 및 울 카펫, 상징적인 트위드 가구와 조화를 이룬다. 또 매장 벽면에는 가브리엘 샤넬 여사가 추구했던 예술가 후원의 전통을 이어받아, 다양한 예술 작품, 오브제 및 가구가 전시돼 있는데, 이는 피터 마리노가 부티크의 독특한 개성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선정했다. 리젠시(Regency) 시대의 화려한 거울과 책상, 독일 예술가 그레고르 힐데бран트(Gregor Hildebrandt)가 제작한 코코 샤넬의 '초상화', 조각가 요한 크레텐(Johan Creten)의 금박 세라믹 조각을 포함한 70여 점의 예술 작품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브랜드의 정수를 담은 공간 구성

총 2개 층으로 구성된 이 부티크는 각각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샤넬의 주요 컬렉션을 직관적이고 품격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남측 정면의 주 출입구는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이곳에서는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져 샤넬

하우스의 상징적 요소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흰색 금속 패널과 검은색 테두리의 세련된 대비가 기존 역사적 건축물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검은색 유리벽을 통해 내부에서 바깥을 조망할 수 있어 실내·외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1층에는 샤넬 슈즈 컬렉션을 위한 공간이 펼쳐진다. 트위드로 감싼 벽과 부드러운 울 카펫이 깔린 여유로운 두 공간이 연결되어 있으며, 라운지를 배치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곳에서는 투톤 슬링백, 발레리나 슈즈, 그리고 2025 S/S 컬렉션의 플랫폼 슈즈를 포함한 샤넬의 시그니처 슈즈 스타일을 여유롭게 경험할 수 있다. 1층의 중앙 공간을 따라 이어지는 위치 & 화인 주얼리 공간은 보다 친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수작업으로 금박을 입힌 천장과 섬세하게 마감한 골드 메탈 블랙 캐비닛 벽이 조화를 이룬다. 2층에도 또 하나의 위치 & 화인 주얼리 살롱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르데코에서 영감을 받은 카펫의 메탈릭한 디테일을 비추는 브론즈 스크린과 해머드 브론즈 메탈 캐비닛이 공간을 장식한다. 한쪽 벽난로 옆에는 피터 레인(Peter Lane)의 유약을 입힌 세라믹 벽 조각이 배치되어 있으며, 보석 세공사 로베르 구센(Robert Goossens)의 상들이에 화려함을 또 한번 강조하며 중심을 이룬다.

1 빌딩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살린 샤넬 더 헤리티지 부티크 외관.
2 아이코닉한 백과 신제품 핸드백 등 액세서리가 있는 공간으로 우아하고 정교한 물딩으로 완성한 높은 천장이 인상적이다.
3 매장 내에 아메 작가의 작품이 조화롭게 전시되어 있다.
4 1층 슈즈 컬렉션을 위한 공간에는 편안한 소파를 곳곳에 배치해 자유롭게 편안하게 착용해볼 수 있다.
5 샤넬의 화인 주얼리, 하이 주얼리, 위치 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샤넬을 위해 특별 제작한 상들이에가 돋보인다.

이곳에서 고객들은 샤넬 하우스의 장인 정신과 무한한 창의성이 담긴 샤넬 하이 주얼리, 화인 주얼리, 위치 및 오브제 오를로제리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두 층에 걸쳐 핸드백과 액세서리 컬렉션이 펼쳐지는 데, 1층에는 층고 높은 갤러리 스타일로 설계된 살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시선을 사로잡는 조화로운 흐름을 형성한다. 맞춤형 캐비닛에는 샤넬의 아이코닉한 백과 함께 신제품 샤넬 25 핸드백을 비롯한 시즌별 신제품이 자리한다. 2층에는 서로 연결된 공간과 편안한 소파가 마련된 여러 개의 피딩 룸과 함께 레다-투-웨이 컬렉션이 자리한다. 이 부티크의 또 다른 중심 공간인 아트리움은 제트 블랙 유리와 세련된 반사 효과, 그리고 현대 예술가 미할 로프너(Michal Rovner)의 LED 설치 작품이 어우러진 시각적 명소로,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영상은 부티크 전체에 생명감을 불어넣는다. 외관 또한 건물의 역사적 요소와 샤넬 하우스 특유의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흰색 금속 패널과 검은 프레임의 절제된 디자인은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첫인상을 남긴다. 서울의 새로운 문화적 랜드마크로 떠오를 이 공간에서, 방문객들은 단순한 쇼핑을 넘어 샤넬의 헤리티지와 창의성, 그리고 장인 정신이 담긴 모든 순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에디터 **성정민**



Run to You

기본 전환에 달리기만 한 게 없다.
기능성은 물론 산뜻한 컬러감과 트렌디한 디자인까지
겸비한 요즘 러닝화.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브랜드 자체 기술적인 슈퍼 크리티컬 폼 미드 솔을 적용해 지면 반발력이 뛰어난 마하 6 18만 5천원대 **호카**. 문의 02-979-5930. 데일리 운동부터 실전 레이스까지 모두 활용 가능하며, 2025 서울마라톤을 기념해 완성한 대회 공식 로고를 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아디데로 보스턴 12 서울마라톤 에디션 17만9천원대 **아디다스 스포츠퍼포먼스**. 문의 1588-8241. 로에베와 온라닝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으로 신발 허 부분에 새긴 '로에베 x 온(On)' 로고가 특징이며, 뒷면에 루프를 추가해 신고 벗기 편한 클라우드플라우드 2.0 스니커즈 73만원대 **로에베**. 문의 02-518-6416. 브라질산 천연 라텍스로 제작한 L-Foam 덕분에 달리는 동안 지면에 닿으면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발의 피로도를 낮춘 콘도르3 28만18천원대 **베자**. 문의 02-3442-3012. TPU YAN 엔지니어드 메시 소재로 우수한 통기성을 자랑하는 델타프로 EXP V2 27만9천원대 **대상트**. 문의 080-565-5600. 목신한 쿠션 기능을 적용해 구름 위를 걷는 듯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젤-넘버스 27 18만 9천원대 **아식스**. 문의 080-929-3535 인터넷 에디터 **김보민**



The Best Gift Ever

따뜻한 색채와 간명한 디자인, 활동성 높은 아이템으로
완성한 5월의 선물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넓은 챙의 드라마틱한 실루엣을 담은 와이드 브림 햇 98만원 **아노나**.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을 제공해 크로스 보디, 숄더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염소가죽 소재의 레오노라 백 4백39만원 **가브리엘라 허스트**.

영롱한 보석에서 영감받아 다채로운 빛의 질러를 수놓은 시즌널 크리스탈 프린트 스카프, 90×90cm, 73만원 **아노나**.

브랜드 시그니처인 레드 림스틱 모티브가 포인트인 캐시미어 소재의 하프 슬리브 여성 스웨터 1백3만원 **아노나**.

친환경 스파이더리스 아웃솔을 적용한 스니커즈 유니섹스 골프 슈즈 73만원 **발리**.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며, 브랜드 시그니처 스트라이프와 코튼 톱 핸들을 조합한 XXL 사이즈의 크레스트 더블백 1백49만원 **발리**.

코튼, 실크, 리넨 소재를 활용해 시원한 착용감이 특징인 하프 슬리브 남성 스웨터 1백58만원 **아노나**.

구조적인 원형 실루엣에서 유니크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양가죽 소재 나나 백 3백97만원 **가브리엘라 허스트**.

코튼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과 내구성이 뛰어난 유니섹스 크레스트 골프 캡 39만원 **발리**.

브랜드의 전통을 상징하는 로고 패치를 더해 헤리티지를 강조한 유니섹스 크레스트 워시 백 49만원 **발리**.

신축성 있는 민트 컬러의 장이자기족 소재 시멘트 키드 홀더 69만원 **발리**.

여름에도 착용 가능한 캐시미어 소재 두블라 스카프, 200×70cm, 98만원 **아노나**.

가브리엘라 허스트 02-3438-6132
발리 02-2163-1122
랑방 02-3438-6186
아노나 02-3449-5942

THE GIFT IDEAS

고마움과 소중함을 전하는 5월, 그 진심을 담아 고른 특별함.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브랜드의 시그니처
모티브인 울루 모양으로 다이아몬드를
커팅해 솔리테어 스타일로 세팅한
플래티넘 소재의 울루 솔리테르 링
가격 미정 **키린** 02-6905-3453.
여성성과 강인함의 상징인 미모사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으로 코일 형태로 말린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세팅한 미모사 플렉시 링
가격 미정 **다미아니** 02-515-1924.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아이코닉한 장미꽃잎과 잎사귀를 표현한
로즈 다울 비가텔 링 가격 미정
다울 파인주얼리 02-3280-0104.
섬세한 꽃잎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완성한 와일드 플라워
컬렉션 펜던트 1천3백74만원 **그라프**
02-2256-6810.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장미꽃 디자인에 8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1.45캐럿을 세팅해
완성한 피아제 로즈 펜던트
2천3백30만원 **피아제** 1668-1874.



(왼쪽 아래부터 차례대로) 볼드한 링크를 세련되게 엮어 볼륨감을 부여하는 디자인으로 18K 로즈 골드에 링크 1개에만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티파니 하드웨어 링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티파니** 1670-1837. 화려하고 관능적인 뱀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세르펜티 바이퍼 2코일 브레이슬릿 1억7백만원 **볼가리** 02-6105-2120. 로즈 드 방 컬렉션의 새로운 네크라스로 핑크 골드 소재의 별 모양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를 추가해 볼륨과 우아함을 부여했다.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02-3280-0104. 못에서 영감받은 주얼리 컬렉션으로 핑크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저스트 앵글루 링 9백만원대 **까르띠에** 1877-4326. 섬세한 골드 비즈가 경쾌한 매력을 선사하는 18K 핑크 골드 소재 뱀틀리 컬렉션 링으로 비즈 사이에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세팅해 볼륨감을 더했다.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브랜드 대표 숫자 5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상징적인 컬렉션으로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엑스트레 드 N°5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샤넬 확인 주얼리** 080-805-9628. 브랜드 대표 컬렉션인 콰트로 컬렉션에서 새로 출시한 콰트로 클래식 튜브 브레이슬릿으로 더 볼드해진 셰이프와 두께가 특징이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화이트·핑크 골드, 그리고 브라운 PVD 소재로 이뤄진 콰트로 모티브가 중앙에 포인트로 자리한다. 7천만원대 **부쉐론** 02-3213-2246.



(왼쪽부터 차례대로) 브랜드의 시그니처 모티브 포스텐과 꼬임 디테일을 담은 디자인의 핑크 골드와 다이아몬드 소재 포스텐 라이즈 링 9백73만원 **프레드** 02-514-3721. 초창기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링 디자인에서 영감받은 스타일로 앞면에는 12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뒷면에는 터퀴즈 원석으로 장식해 다양하게 연출 가능한 로즈 골드 소재의 토폴닷 리버시블 링 가격 미정 **포멜라토** 0030-8321-0441.



(위부터) 나비의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실루엣에서 영감받은 섬세하고 정교한 그라프 파베 버터플라이 컬렉션 라운드 다이아몬드 화이트 골드 펜던트 1천1백47만원, 다이아몬드 총 1.15 캐럿을 세팅한 그라프 파베 버터플라이 컬렉션 마퀴즈 파베 다이아몬드 링 1천1백62만원 모두 **그라프** 02-2256-6810.



새벽과 황혼이 동시에 연상되는 스켈레톤 다이얼을 통해 극도의 정교함을 엿볼 수 있다. 하이테크 세라믹과 스테인리스 스틸 스트랩에서 우아함이 느껴지는 센트릭스 오픈하트 4백50만원 **라도** 02-3479-1158, 셀프 와인딩 메케니컬 무브먼트를 탑재해 최대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고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적용해 스크래치에 강한 다이얼이 특징인 마스터 컬렉션 워치 5백80만원 **론진** 02-3479-1940.



(위부터 차례대로)
지름 40mm의 레드 골드 케이스와 실버 도금 다이얼, 다크 브라운 엘리게이터 스트랩의 조합에서 신사의 기품이 느껴진다.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1천8백40만원 **IWC** 1877-4315, 도피네 핸즈와 아틀리케 인덱스,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가 만난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워치 가격 미정 **예거 르쿨트르** 02-6905-3998, 그랑 피 에나멜을 적용한 매끄러운 다이얼에 아라비아숫자 인덱스와 5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로 시간을 표시하고 심플한 골드 케이스와 브라운 레더 스트랩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클래식 7147 3천5백29만원 **브레게** 02-3149-9559.

(위부터 차례대로)
슬림한 로즈 골드 케이스와 브라운 엘리게이터 스트랩이 조화로운 피에르 아펠 워치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베젤은 물론 러그 곡선을 따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62개를 화려하게 세팅한 골드 다이얼의 라임라이트 갈라 워치 6천2백만원 **피아제** 1668-1874, 지름 39mm 스틸 케이스, 핑크 다이얼과 키프 스킨 리더 스트랩, 다이아몬드 인덱스와 베젤 등에서 화사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까레라 크로노그래프 글라스바스 1천2백59만원 **태그호이어** 02-3466-5700, 지름 34.9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라일락 로마 인덱스, 다이아몬드 크라운, 사파이어 케이스 백 등을 장착하고 라일락 엘리게이터 스트랩으로 마무리했다. 1백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레이디버드 컬러즈 라일락 워치 4천6백84만원 **블랑팡** 02-3479-1833, 화이트 자개 다이얼에 로마숫자와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를 교차 배열했으며,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장착한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드 빌 프레스티지 3천2백만원대 **오메가** 02-3467-8632, 골드 베젤을 따라 4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지름 32mm의 스파릿 오브 박병 킹 골드 화이트 다이아몬드 워치 4천만원대 **위블로** 02-2118-6208.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뒤에서 팔로 감싸안은 듯한 디자인이 특징인 허그 미니 백 가격 미정 **페라기모** 02-3430-7854.
애니멀 프린트를 더해 과감한 연출이 가능한 미디어 갤러리아 백 가격 미정 **프라다** 080-522-7199. 유연한 실루엣의 카프 스킨 소재 미니 파즐 엣지 백 3백50만원 **로에베** 02-3479-1785. 이탈리아산 박스 카프 스킨을 사용해 특유의 광택이 흐르며 'RL' 모노그램 클로저를 적용한 RL 888 탑 핸들 백 3백70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02-3467-6560. 유니크한 톱 핸들과 실버 컬러의 숭아지가죽을 사용해 격식 있는 자리에 제격인 펜슬 캣 나노 탑 핸들 백 6백49만원 **랑방** 02-3438-6186.

(위부터 차례대로)
백 또는 벨트에 장식할 수 있는 꿀단지 모양의 릴레 홀더 80만원대 **펜디** 02-514-0652. 로고 포인트 헤어밴드 가격 미정 **샤넬** 080-805-9628. 마젠타 컬러의 카프 스킨을 사용해 산뜻한 분위기를 전하는 클레이 샌들 가격 미정 **에르메스** 02-542-6622. 셔츠 모티브 백 참 가격 미정 **마우미우** 080-522-7198. 아세테이트 소재의 스퀘어 선글라스 가격 미정 **맥퀸** 02-6120-2226. 촉감이 부드러운 캐시미어 누볼라 스카프 98만원 **아노나** 02-3449-5942.



(위부터 차례대로)
군더더기 없는 날렵한 라인이 돋보이는 앤튼 워크로퍼 1백만원대 **로로피아나** 02-6200-7799. 라운드 셰이프의 라이트 그린 아세테이트 안경 50만원 **툼 포드 아이웨어** 02-6905-7963. 다미에 패턴을 입은 페이즐리 빈다나 가격 미정 **루이 비통** 02-3432-1854. 실버 로고 버클을 추가한 미디어 트리옹프 벨트 99만원 **셀란느 움즈** 1577-8841. 셔플룩 모양의 카프 스킨 소재 배드민턴 참 86만원 **로에베** 02-3479-1785.



(위부터) 프랑스어로 화이트를 의미하는 제품명처럼 하얗고 깨끗한 코튼 시트에서 느껴지는 맑고 순수한 향을 표현하면서도 한층 강렬하고 감각적인 느낌을 추가한 블랑쉬 앰플뤼 드 퍼퓸 100ml 47만원대 **바이레도** 1533-7305. 디자이너 아르마니의 기억에 새겨진 자연을 향기로 엮어낸 레 조 컬렉션에 추가된 향. 싱그러운 베르가모트와 씩씩한 갈바눔이 만나 자아내는 생기 넘치는 그린 노트와 은은한 아이리스 향이 일품인 아르마니 프리베 레 조 컬렉션 아이리스 블루 100ml 35만원대 **아르마니 뷰티** 080-022-3332.



(왼쪽부터 차례대로) 하우스에서 8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향수로 우아하고 매혹적인 플로럴 프루티 향과 황홀하게 빛나는 바이올렛 컬러가 매력적인 샹스 오 스피렌디드 100ml 28만4천원 **샤넬** 080-805-9638. 마지막 한 번의 터치로 볼러 효과를 준 듯 매끈하고 투명한 메이크업을 완성해주는 파우더로 기존보다 곱고 가벼운 입자로 업그레이드된 프리즘 리브르 웨이드 00 톨 오팔렌센트 4x2.5g 8만9천원대 **지방시 뷰티** 080-801-9500. pH에 따라 반응하는 컬러 랩밤으로 개개인에 맞게 컬러가 연출되며 젤리처럼 탭글하게 차오르는 수분 플럼핑 립을 연출해주는 퓨어 컬러 젤리 글로우 밤 3g 3만8천원대 **에스티 로더** 02-6971-3212. 디올 쿠티르에서 영감받은 투왈 드 주이 패턴과 사랑스러운 핑크가 만나 산뜻한 패키지와 텍스처로 선보이는 디올 르 밤 트왈 드 주이 리미티드 에디션 50ml 8만원대 **디올** 080-342-9500. 브랜드 조향사가 만든 시그니처 향을 담아 완성한 핸드크림으로 풍성한 향과 보습력이 특징인 아쿠아 알레고리아 핸드크림 로사 베르데 50ml 7만5천원 **겔랑** 080-343-9500.

(왼쪽부터 차례대로) 브랜드의 글로벌 비즈니스 론칭 4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시그니처 향을 재해석한 보디 미스트 오 바이 발몽의 리미티드 에디션. 상쾌한 시트러스와 아로마틱한 그린 바베나 향 등이 아우러져 힐링을 선사하며 보디 보습 효과까지 갖췄다. 150ml 26만원 **발몽** 070-4352-5203. 벚꽃에서 영감받은 크림으로 부드러운 텍스처가 촉촉한 수분감을 선사하는 화이트 루센트 브라이트닝 젤 크림 50ml 8만8천원대 **시세이도** 080-564-7700.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고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건강한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는 젤 투 밤 텍스처의 프라다 어그멘티드 스킨 크림 60ml 55만원 **프라다 뷰티** 080-522-7199. 이모르텔 꽃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10배 고농축 골든 캡슐에 가득 담아 피부 속을 단탄하게 채우고 인티에이징을 돕는 이모르텔 오버나이트 라셋 오일 인 세럼 30ml 9만9천원대 **룩시땅** 02-2054-0500. 수련 추출물과 카렌둘라 플라워 워터 등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한 포뮬라가 메이크업 잔여물을 순하고 말끔히 지워주는 로즈 메이크업 리무버 75ml 8만1천원 **상테카이** 070-4370-7511. 독자적인 캐비아 성분을 함유한 캐비아 마이크로-뉴트리언트와 캐비아 하이드로에센스, 엑스클루시브 뽀루라 콤플렉스™의 결합으로 피부 구조와 수분 장벽을 강화하는 스킨 캐비아 하이드로 에멀전 70ml 58만4천원대 **라프레리** 02-6390-1170. 단순 진정 효과를 넘어 민감한 피부의 모든 생리적 요소에 작용해 자극을 줄여주는 민감 피부 전용 케어 솔루션 크림, 센스티브 스킨 수딩 케어 40ml 28만원 **시슬리** 080-549-0216. 에디터 **성정민, 김하얀**



NEW LIPSTICK

시슬리 휘도-루즈 벨벳 N°40 Rouge Icon 입술 각질 부각 없는 벨벳 매트 텍스처와 클래식한 레드 컬러가 일품. 3g 8만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성경민

Editor's Pick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내추럴 컬러,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는 따뜻한 향. 완전한 봄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이달의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룩시팡 체리 블라썸 샤워 젤 2 in 1 제품으로 보디 클렌저와 거품 목욕제로 사용 가능한 제품. 250ml 3만4천원대. 문의 02-2054-050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구찌 뷰티 피오리 디 네롤리 오 드 퍼퓸 네롤리의 꽃과 잎, 그리고 시더우드 향을 맡는 순간 지중해의 산들바람이 온몸을 휘감는 느낌이랄까. 심신이 리프레시되는 기분! 50ml 35만8천원. 문의 080-850-0708 _by 에디터 김하얀

NEW LIPGLASS

맥 립글라스 블로우 플럼핑 오일 플럼핑 효과부터 수분 촉촉 보습과 윤기까지, '오일 한 방울의 기적'이라 할 만하다. 5ml 3만8천원. 문의 1644-3748 _by 에디터 김하얀



지방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브론저 파우더 #H001 무슬린 브론저 브론즈, 하이라이터 등 네 가지 컬러 구성으로 자연스럽게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준다. 7g 8만2천원대. 문의 080-801-950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NEW CANDLE

라부르켓 캔들 #스위트 토바코 스웨덴에서 제작한 비건 유채 왁스를 블렌드해 완성했으며, 아이리스와 시더우드 향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50g 5만9천원대. 문의 1644-449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시세이도 퍼펙트 선 프로텍터 로션 SPF 50+ PA++++ 묽은 로션 텍스처로 흡수력이 좋고 피부에 얇게 밀착되며 하루 종일 산뜻한 느낌을 주어 손이 자주 간다. 50ml 6만7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신정임

NEW GLOW

디올 뷰티 디올 포에버 글로우 맥시마이저 #212 튜브 칙칙한 얼굴에 생기를 찾아주는 디올 핑크 컬러에 은은한 하이라이터 기능을 추가해 영롱한 피부를 연출해준다. 11ml 7만2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성경민



러쉬 로즈 슝 이번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대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장미 한 송이, 로즈 슝을 준비했다. 신선한 로즈와 제라늄 향이 나며, 어린 시절 용돈을 모아 부모님께 꽃을 사드렸던 기억이 떠오른다. 150g 2만5천원. 문의 1644-2357 _by 에디터 신정임

나스 토탈 시덕션 아이섀도우 스틱 쉬머 어블레이즈 부드러운 텍스처라 크리즈 현상도 적고, 아이홀에 쓰옥 발라 블렌딩해주면 삼폐인 골드 컬러의 은은한 눈매 완성! 1.6g 4만7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신정임

* 상영관(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북화상, 김보민(20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 펜디 FF 데님 맘마 백 출시 글로벌 패션 하우스 브랜드 펜디가 2025 S/S 컬렉션에서 기존 디자인을 재해석한 FF 데님 맘마 백을 출시했다. 미디엄 사이즈에 데님 FF 자카드 패브릭 소재를 사용했으며, 탈착 가능한 레더 핸들과 솔더 스트랩을 더해 토트백, 숄더백, 크로스 보디 백 등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544-1952

2 그라프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오픈 영국 하이엔드주얼리 브랜드 그라프가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워치 & 주얼리 컬렉션이 선사하는 광채감을 담은 인테리어나 디테일을 가미한 그라프의 철학이 담긴 그라프 살롱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50-2320

3 셀린느 에메 셀린느 컬렉션 셀린느에서 프랑스의 코트다쥐르와 생트로페의 분위기에서 영감받아 에메 셀린느(ÉTIÉ CELINE) 컬렉션을 선보였다.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라피아 백부터 여름의 미학을 담아낸 실내, 야외용 퍼니처와 해변에서 사용하는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1577-8841

4 샤넬 뷰티 상스 오 스플렌디드 오 드 빠르팡 샤넬 뷰티에서 8년 만에 새로운 향수 '상스 오 스플렌디드 오 드 빠르팡'을 출시했다. 신비로움과 우아함이 깃든 바이올렛 컬러로 선보였으며, 상큼한 라즈베리향을 시작으로 은은한 시더와 화이트 머스크로 마무리해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080-805-9638

5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오토매틱 42mm 블랑팡의 아이코닉 다이아 워치 피프티 패덤즈 오토매틱 42mm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이 한정판이 아닌 정규 컬렉션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XXL 야광 인덱스, 동형 사파이어 인서트 베젤로 가독성을 높였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트로픽 러버 스트랩 등 다양한 스트랩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3479-1833



Showroom



6 샤넬 워치 J12 블루 샤넬 워치에서 J12 출시 25년을 맞이해 블랙 에디션과 화이트 에디션에 이어 J12 블루(J12 BLUE)를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했다. 블랙에 가까운 동시에 블루에도 가까운 오묘한 블루톤의 컬러가 특징이며, 스크래치에 강하고 높은 내구성을 지닌 세라믹 소재로 제작했다. J12 블루 다이하몬드 투르비옹 워치, J12 블루 X-RAY 워치 등 총 9개의 모델로 선보였다. 문의 080-805-9628

7 아노나 실크 나일론 테크 트렌치코트 이탈리아 타임리스 럭셔리 브랜드 아노나에서 기능성과 우아함을 동시에 담아낸 실크 나일론 테크 트렌치코트를 공개했다. 실크 소재에 나일론을 혼합해 유연한 촉감과 고급스러운 광택을 자랑하며 물에 강한 특성을 더해 실용성까지 겸비했다. 문의 02-3449-5942

8 디올 파인주얼리 로즈 드 방 컬렉션 디올 파인주얼리에서 탄생 10주년을 맞이한 로즈 드 방 컬렉션을 제안한다. 말라카이트, 라피스 라줄리, 머더오브펠 등의 소재에 별이 연상되는 디테일을 더한 로즈 드 방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이어링, 브로치와 핑크골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별 모티프 장식의 싱글 이어링 등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한다. 문의 02-3280-0104

9 태그호이어 포몰러 1 솔라그래프 워치스 & 원더스 2025에서 태그호이어가 '포몰러 1 솔라그래프' 신제품을 공개했다. 포몰러 1 라인업 최초로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솔라그래프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2분간의 직사광선 노출로 하루 동안 구동된다.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는 최대 10개월간 작동 가능하며 시계가 멈추더라도 단 10초만 빛에 노출하면 다시 작동하는 초고효율 기능을 자랑한다. 문의 02-3479-6021

10 타사키 아코야 진주 네크리스 기프트 제안 타사키에서 5월 부부의 날을 맞이해 '아코야 진주 네크



라스를 기프트로 제안한다. 겹겹이 두른 진주층이 미묘한 컬러를 발산해 아름다운 광택이 특징이며, 자사 진주 양식장에서 진주의 선별, 디자인, 가공 등 전 과정을 진행해 최상의 퀄리티를 제공한다. 문의 02-3461-5558

11 시몬스 가정의 달 선물을 제안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숙면 베개 2종을 제안한다. 소프트 타입의 고밀도 메모리폼으로 경추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C 커브를 유지해주는 '뷰티레스트 비스코 스프링 원더 필로우', 개별 지지력의 포켓 스프링과 높은 안정감을 제공하는 화이버 패딩으로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뷰티레스트 화이버 포켓스프링 필로우'로 건강한 수면 자세를 만들어 최적의 숙면을 제공한다. 문의 1899-8182





SANTOS
DE
Cartier